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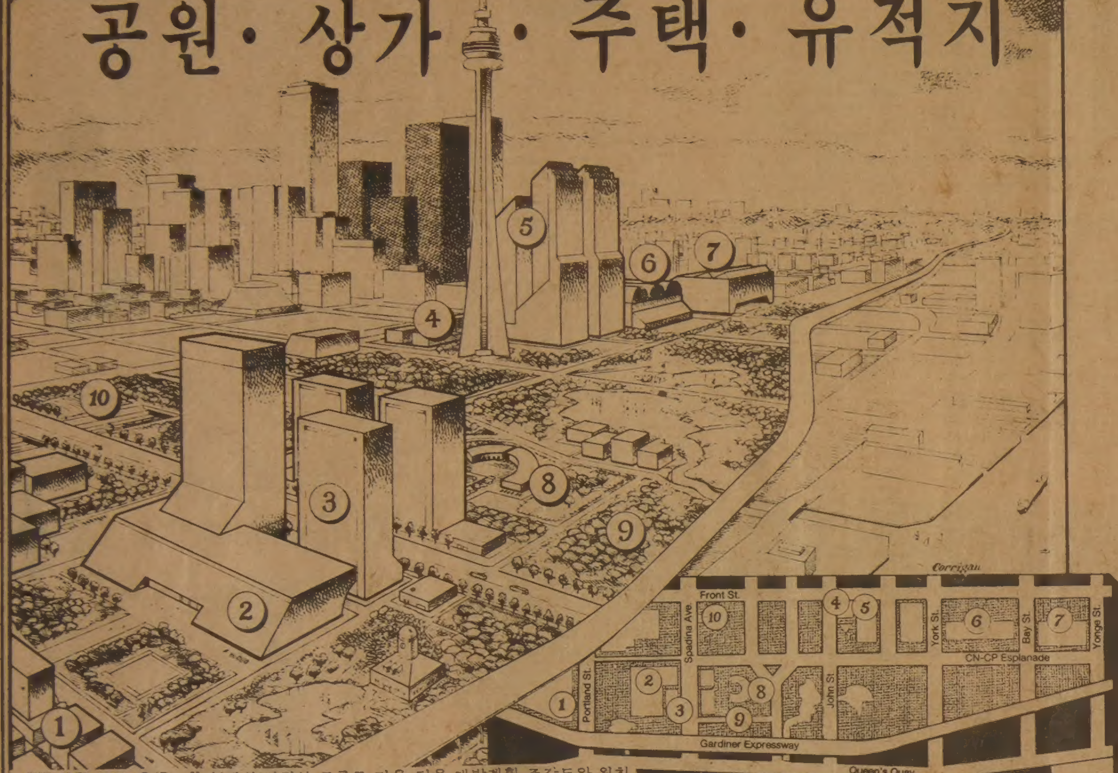
No. 940 1982년 9월 29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September 2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OCT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토론토를 꿈의 도시로"
공원·상가·주택·유적지



CNE 남쪽 포트·욕(Fort York)에서 바라본 토론토 다운·타운 개발계획 조감도와 위치. (1)아파트 (2)CBC본부청사 (3)CN회사의 상업지 개발구역 (4)컨벤션·센터와 호텔 (5)마라톤회사의 상업지개발 구역 (6)유니온·플라자 (7)새 버스·터미날 (8)역사적 유적지 (9)공원부지 (10)새 철도역.

하버프론트 개발에 $20억

토론토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다.

인구확장으로 교외에 새 주택지가 들어서는 것외에 다운타운에도 건축붐이 일고 있다.

특히 도심이면서도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토론토 다운타운 남쪽 부두가를 운하와 거대한 공원등으로 이루어진 "꿈의 장소"로 전향시키는 $20억짜리 공사계획이 완성단계에 있다.

26일 토론토·스타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트·이글턴 토론토시장과 시티·홀 건설계획담당자들이 마지막 손질에 들어간 이 대계획은 동서로 영·스트릿과 포트랜드·스트릿, 남북으로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와 프론트·스트릿을 잇는 150에이커의 땅을 공원, 운하, 2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지, 상가, 공공장소, 교통집합지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폐쇄된 철로가 방치되어 있는 등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CN철도회사와 마라손·리얼티 부동산회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지역개발안에 대한 토론토시 계획은 이들 회사에 개발권을 주는 대신 100에이커를 공공장소로 개발하고, 50에이커를 상업및 주택지로 개발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단일공사로는 북미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계획에는 스파다이나 남쪽 철로부지에 $2억짜리 CBC방송국 건물을 짓는 것과 낡은 웨스트·토론토 CP 기차역을 농산물직판장으로 개조시키고 철로를 고적지 철로(Heritage Trail)로서 그 형태를 보존시키고 벨트·라인(Belt Line)까지를 인도로 만들어 자전거및 보행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아트·이글턴시장은 인터뷰에서 "어떤 도시 계획도 인간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시정부로서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론토 부두가는 시민들이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토론토시 도시계획 개발담당관 스티븐 맥로린씨는 "토론토는 호수를 낀 도시라는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고 본다. 또 배서스트, 베이, 영스트릿에서 굽어보면 항구에 정박하는 배들을 볼 수 있도록 할것이다."고 말했다.

스파다이나 다리 넓혀
프랑스의 샹젤리제같이

◆블루어 지하철역에서 하버프론트까지의 스파다이나 교통노선을 신설, 초고속 전차나 버스를 운행케 한다.

◆철로위를 지나는 스파다이나 브리지를 넓혀 보도, 상가, 고급 부띠끄, 극장, 식당등을 부두가까지 들여놓아 마치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같이 만든다.

◆배서스트와 CN타워 주변을 2만명 수용의 임대용 주택지로 개발한다.

◆영·스트릿을 부두가까지 확장한다.

◆웨스트·토론토 기차역을 농부들이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와 직판하는 장터로 만들고 벨트·라인을 새로운 자전거 산책코스로 만든다.

◆퀸즈·키이를 따라 놓여있는 철로는 모두 제거한다.

◆유니온역과 CNE및 온타리오·플레이스를 연결하는 새 교통노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남미와 잡화상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 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5%		12%
90일	13%		12.5%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람이 보장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북한외교관 미여인 강간
피해여인 고발, 영장 발부

(뉴욕27일=연합)유엔주재 북한외교관이 미국여인 강간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외교가에 큰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외교대표부 3등 서기관인 오님철이 지난 5일 뉴욕시 근교 웨스트체스타(Westchester)해변에서 미국여인을 강간했으며, 피해를 입은 여인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오에 대한 구속영장이 웨스트체스타 지방법원에 의해 27일 발부되었으며 북한대표부는 미국당국에 오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 혐의가 재판에서 사실로 판정될 경우 유엔주재 외교관이 강간에 관련되기는 1945년 유엔이 창설된 후 처음있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은 옵서버 자격으로 18명의 외교관을 유엔에 주재시키고 있으나 이들의 가족은 모두 북한에 남겨두고 있다.

외국인투자율
산업의 66%

(서울28일=연합)한국정부는 서비스업, 도매및 소매업등 94개업종에 추가로 외국인 투자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정부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산업분야가 한국의 전산업분야에 차지하는 비율이 55%에서 66%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분야를 늘리는 것 외에도 외국인의 대한투자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데 일본은 전체 외국인투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4.3%이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런던 기관별 야구대회
—우승 천주교, 2등 제일교회—

(런던=강상권지국장)지난 18일 런던한인회(회장 배동범) 주최로 런던시 기본스공원에서 벌어진 한인기관별 야구대회는 천주교회A·OB팀, 제일장로교회, 한인장로교회A·OB팀의 5개팀이 열전을 벌인 끝에 천주교회A팀이 우승, 작년도 우승의 한인교회A팀은 3위에 머물렀다.

이날 입상팀, 스코어, 개인상은 아래와 같다.

◆입상
우승: 천주교회A팀
2등: 제일장로교회
3등: 한인장로교회A팀

◆대진전적
한인OB 16:14 천주OB
천주A 15:11 한인A
제일 10:8 한인OB
〈결승〉
천주A 10:7 제일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배 풀
최우수투수상: 최영재
홈런상: 장여수
감투상: 원 용
미기상: 강동근

아는척한 것이 불씨
KKK단 두목 2년 징역형
도미니카사건, 야노버도 공범

전 KKK(Ku Klux Klan: 백인우월주의자 과격단체)단 토론토 두목 제임스·알렉산더·매퀴터(24)가 서인도제도의 도미니카공화국 전복음모혐의로 2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우리 귀에도 익은 찰스·야노버(37 일명 「처키」)는 동사건과 관련, 오는 8일 재판을 받는다. 전 무기판매상이며 살인·무기공급등 혐의로 재판정에 쉴새없이 출두했던 야노버는 금년들어 3가지 사건으로 재판정을 집드나들듯 했다.

교포 최중화등과 어울려 저지른 혐의의 전대통령암살음모사건은 한 고비를 넘겨 암살음모보다 최중화와 북한공작인에게서 암살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사기죄를 추궁받고 있다.

또 교포 문치식씨와 함께 알비브 디스코클럽 폭파사건에도 연루, 현재 보석중이다.

야노버가 금년에 처음 온타리오주경찰(OPP)에 잡힌 것은 2월초 도미니카 전복음모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79년 미국 휴스톤 거주 마이클·퍼듀씨에 의해 착안됐다. 퍼듀는 미KKK단 두목 데이브·듀크와 접촉, 하수인들을 모집했다.

듀크는 미국, 캐나다에서 KKK단 멤버를 중심으로 10명의 대원을 확보했다. 이중에는 KKK 토론토두목 제임스·매퀴터, 단원 울프강, 도로시, KKK는 아니나 수많은 전과를 가진 찰스·야노비가 선발됐다.

거사직전 기밀이 누설되어 전모가 밝혀져 가담자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체포됐다.

계획에 의하면 중무장한 10명의 공격대원이 뉴·올리안즈(미국 남부)항을 보트로 출발, 캐리브해를 건너 인구7만의 도미니크공화국 해안에 도착, 그쪽의 대기자들과 합류, 곧바로 방송국을 점령하고 경찰등 방해자들을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백인 전용의 국가를 세울 참이었다.

제임스·매퀴터가 경찰에 잡힌 것은 자기의 얕은 법률지식 때문이었다.

외국정부의 전복음모가 미국에서 이뤄졌고 캐나다 안보와는 관계없어 캐나다에서는 죄가 성립 안된다고 생각한 매퀴터는 사건을 프리랜서 기자에게 흘리기 시작했다. 이 정보를 들은 온타리오주경찰은 캐나다에서는 한번도 적용안된 "외국의 법을 어기는 음모도 죄가된다"는 형사법의 새 조항을 적용, 구속키로 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기자와 매퀴터의 인터뷰내용을 녹음, 사건 전모를 알게된 것이다.

◆알렉산더·매퀴터

24일 온타리오지방법원서 2년징역형을 선고한 패트릭·리사지판사는 "이와 같은 행동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형량이 적은 것이 불행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희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 Reg. 1,000.00
—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IATA
여름철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단풍이우리를부릅니다
☆매주 당일관광
(알공킨 단풍코스 포함)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월	30,000 ISLANDS	9:00	20:00	코라메	$59
화	알 공 킨 (입장료포함)	8:30	20:00	코라메	$56
수	나이아가라	10:00	19:00	코라메	$55
목	1,000 Islands	9:00	20:00	코라메	$59
금	알 공 킨 (입장료포함)	8:30	20:00	코라메	$56
토	나이아가라	10:00	19:00	코라메	$55

⊙비고 : 관광안내및 왕복교통·점심 BOAT·유람비용등 포함.
◎출발은 7인 이상일때 한함.
◎개인별관광(4인이하)은 별도문의 바람
◎신청마감 : 각 출발일 이틀전
★일정및 요금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읍니다.
★기타 관광에 대한 자세한 문의 환영합니다
코라메관광(주)
649A BLOOR ST. W.
☎: 535－0853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일본, 재일교포 차별

교과서왜곡등 남궁씨 지적

"재일교포는 무국적자같은 차별대우를 받는 경향이 짙다."고 일본태생 재일교포 남궁성일씨가 24일밤 토론토 웨스트·엔드Y회관에서 열린 베타·한인와이즈멘즈클럽(회장 이석현)월례회에서 강조했다.

지난 24일 하오6시30분에 열린 월례회겸 강연회는 먼저 한인신용조합 한상훈 이사장, 이홍렬 전무의 신용조합제도, 동조합 현황, 오뚜기적금등에 대한 해설에 이어 남궁씨가 재일교포사회 현황보고및 일본의 고교교과서 왜곡사건 진상과 한인계의 반응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었다.(본보 9월20일자 참조)

끝으로 지난 7월하순 서울서 열린 와이즈멘 세계대회 참가보고가 있었다. 김창열 총무, 안병원 회원의 보고에 따르면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대회에 세계각국에서 600명, 한국에서 600명의 정식대표가 참가했으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4천명이 참가했다. 주제는 「YMCA와의 파트너쉽」.

선명회합창단이 각국민요를 불러 박수를 받았고, 국립무용단의 우아한 무용은 한국의 율동미를 유감없이 자아냈다.

대회가 끝난 뒤, 한국의 각 클럽과 형제결연한 외국클럽들은 민박, 관광안내등 흐뭇한 며칠을 보냈다.

토론토의 베타와이즈멘클럽은 서울의 고려와이즈멘클럽과 형제결연이 되어있어 친선교류가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남궁씨 강연요지

재일동포는 과거 역사의 산물이다. 1945년 일본패전 당시 60만 재일교포는 법적 입장이 모호했으나,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후 「외국인관리법」을 제정, 일본정부는 재일교포를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됐다.

65년, 한일회담 결과, 재일교포에게 「영주권」을 주되, 3대까지만 영주권이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일본의 잔학상은 관동대지진때, 재일교포 학생 6천명을 학살했고, 1940년경 교포학생 집단학살, 중일전쟁중 중국대륙 관동대학살, 만주에서의 인체실험 학살등 만행이 심했으나, 그들은 대륙침략을 진출이라고 미화, 기만표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귀화자(일본국적자) 포함 70만의 한인이 살고 있으며, 취직난등 차별대우를 면하기 위해 귀화하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으나 역시 공직취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귀화조건은 1)재산검토, 2)보증인 2명, 3)서약의 3가지 이다.

▲교과서 왜곡사건에 관하여―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에선지,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품고 있다. 일본학자들과 한국학자들은 역사관의 차이가 크다. 그들은 아직도 식민주의 사관(역사관)을 가지고있는 이가 과반수이며, 소위 「일선동조(같은 조상)론」을 내세워 한국민족은 먼 옛날 자기들한테서 갈려나간 아우벌 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

일본에는 고대사연구가가 2만명이나 있는데 비해 한국에는 200명밖에 안되니 학적으로 상대가 못되는 상태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례는 160여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대한차관문제」에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짙고, 중공은 시민의 의식해석에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일본서는 「독립유공자협회」 주동으로 동경서 교과서사건 반대데모가 벌어진 일이 있다.

재일교포들은 일본에서 살고 있고, 직접 압박을 받고 있으니 피부로 심각하게 느낀다. 모국과 해외교포들의 적극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6개반으로 증설

노스욕한글학교

노스욕한글학교(교장 이인용)는 이번 학기부터 6개반으로 학급을 늘렸다.

공부는 North Mount 고교(70 Maxome Ave.)에서 매주 목요일 하오6~8시30분에 실시한다.

〈식품점〉

삼복식품	743-8270
한밭식품	274-5401
재일식품	532-1054
서울식품(동부)	291-8317
서울식품(서부)	243-9544

23차 정기세미나

한인컴퓨터협회

한인 컴퓨터협회(COSKA·회장 이태영)의 제23회 정기세미나가 1일(금) 하오7시 비포드·파고교(777 Bloor St. W.×Christie)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해춘 회원이 Computer Future Technology, 노기수 회원이 Host System Software, 정재열 회원이 Micro-Mini Computer에 관해 각각 강연한다.

연락처 492-9880(Mr. 리)

교민동정

◆오윤성=황해도향우회 회장으로서 9월30일자로 향우회 명단을 발행했다.

이 명단에 의하면 향우들은 모두 50명(세대). 향우회 총무는 김준순, 고문은 전승운, 함필용씨.

◆강찬영(변호사)=모친 이덕인여사(한인장로교권사)의 7순예배를 10월 23일(토) 정오 한인장로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예배후 같은 곳에서 피로연이 있다. 한인회 표창 「장한 어머니」인 이여사는 3남4녀를 두었으며 강변호사는 3째 아들. 7남매 모두 결혼했고 미국 LA서 사는 3, 4째 딸외에는 전부 토론토에서 산다.

◆김동천(캐나다한인탁구협회 총무)=지난 22일부터 4일간, 한국에서 캐나다오픈탁구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나이아가라 관광까지 시키고, 선수단을 보낸후 잠시 피로로 앓아 누웠다고.

현 캐나다한인탁구협회는 회장이 공석(미국 이주로 인해), 부회장 송광호, 재무 장용대등 임원진은 오는 10월말경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탁구에 관심있는 이는 탁구협회로 연락바란다고. 연락처: 533-2361(송광호), 822-0028(김동천)

제5계절

가을 하루

남지연(가정주부)

◆남지연씨

「제5계절」의 집필을 부탁받은 날부터 소화불량증에 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캐나다땅에 떨어진 후에는 펜을 잡아 보지도 않았으니 무엇으로 원고지를 메울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더분에 실로 오랜만에 식구들 모두 잠든 사이에 큰아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며 "나"를 생각해 본다.

문득 신라 최대의 문장가라던 고운 최치원의 「추야우중」(秋夜雨中)이라는 한시가 떠오른다.

―가을 바람에 시를 읊네/세상에 내 마음을 아는 이 없으나/창밖에는 밤이 깊도록 비가 내리고/등불아래 마음은 고국을 달리네.

경주 최씨의 시조이기도 한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가을 밤비가 내리는 가운데 잠 못이루다 등불을 밝히고 시를 써서 만리 고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심정을 쓴 시이다.

시월 초하룻날이 추석 중추절이라니 몇천년후의 캐나다라는 만리타국의 한 모퉁이에서 여섯해 동안이나 명절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심정과 고운선생의 심정을 비교함은 좀 외람된 일일까?

요즘 신문에 보니 시월 초이튿날 어느 단체에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걷기운동을 한다니 명절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아름다운 공원에서 온 식구 다 함께 가서 풀어봄이 어떨까. 애인과 손잡고 걷는 젊은이들, 어린 아기 목말 태우고 걷는 젊은 아빠, 지팡이 짚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만나겠지.

항상 함께 있어도 마음의 저 바닥에 있는 얘기들을 자주 나누어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송서방과 하루를 오붓이 지내야 겠다.

멀지 않은 날 나이 먹어 걷기도 힘들고, 고향에도 못가면 미리 장만해 놓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집으로 가서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맑은 하늘로 맑은 미소를 보내면 공해로 뒤덮인 서울하늘도 다시 맑아지리라.

◆필자소개

◉연세대 정외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한양대학 교양학부 강사
◉「산업경제신문」사 기획위원
◉77년 토론토 이민

시드니한인학교를 방문하고

김원겸(연방정부연구관 및 마니토바대학원 연구교수, 위니펙한글학교 교장)

김원겸박사

작년 8월21일부터 열린 국제식물학회 초청으로 논문발표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민생활과 교민사회발전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 시드니시의 교민상태에 대하여 알고 싶었으나 알도리가 없어 회의가 끝난 28일 저녁에서야 틈을 내어 전화번호책을 뒤져 "호주한인회"라는 이름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글교육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이 많았던 나로서 시드니에도 "한인학교"가 있어 후세들의 모국어 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들어 한편 감개무량 하였다.

매주토요일 수업이 오전 오후 계속되니 찾아와도 좋다는 회답을 받고 다음날 아침 찾아갔다.

인구 300만의 항구 도시인 시드니는 결코 작은 고장이 아니어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작으막한 3층 건물에 몇개의 한국말 간판이 걸려 있었고 학교는 3층에 있었다.

교장이신 박상규선생은 수업시작전 교실청소에 바빴고, 주중에는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된다는 한인학교는 초급, 중급 및 고급의 세반으로 반편성이 되어있었다. 학교 교가가 있어 매주 수업전에는 태극기 경례와 교가를 부르며 마음의 단결을 다진다.

박선생은 정서교육의 유지가 큰 교육목적이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매주 4시간의 한글을 익히고 한시간은 역사, 한자쓰기, 붓글씨쓰기를 배우며 매달 한시간은 하―모니카를 배워 학생 50명이 모두 하―모니카를 곧잘 부르며 벌써 몇번 초대 연주를 했다고 한다. 명절 또는 휴일에는 한복을 입고 특별음식을 손수 학교에서 만들어 실제시범을 통해서 한국 고전교육의 전통을 보여 준다고 설명하는 박교장은 열성이 강한 젊은 나이로 후세교육에 포부가 크다.

오후 비행기로 일본으로 가야할 형편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된것을 섭섭히 여기면서 한인학교의 건전한 유지와 운영으로서 한인사회에 큰 발전을 가져오기를 희망하면서 떠났다. 시드니 한인사회에 벌써 분열이 생겼고, 일년전에 생긴 한인단체가 벌써 셋으로 분리되었다는 모교포의 이야기를 듣고 한인학교는 교민사회를 하나로 움직여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할 것을 희망하면서 호주를 떠났다.

한국일보
533-2361

모교교기 곧 도착

성균관대 동창회

성균관대학동창회(회장 김영태)는 25일 임원회에서 연말잔치를 12월17일(금) 하오8시 권병구 동문댁에서 정기총회를 겸해 열기로 결정했다.

81년 결성된 동창회의 회원수는 9월현재 40여명이며, 10월초순 모교가 보내주는 교기를 받게될 예정이다.

동문중 미가입자는 김영창 총무(233-2471)에게 연락바란다고.

◆사과줍는 어린 소녀들―사과따는 철을 맞이하여 귀여운 소녀들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사과를 줏고 있다.(24일 토론토근교 사과 밭에서)

(1면에서 계속)

심코, 존, 포틀랜드 호숫가까지 연장

◆포트·욕에서 유니온역까지를 그린벨트로 개발, 운하, 작은 호수, 플라자등으로 만든다.

◆베이와 배서스트 사이에 TTC 노선을 연장시키고 길을 새로운 산책길로 만든다.

◆심코, 존, 포틀랜드·스트릿을 호숫가까지 연장, 터널 고가도로를 만든다.

이외에 마라손과 CN 두 회사가 계획중인 민간·상업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유니온 플라자: 유니온역 남쪽에 실내역을 지어 지하로, 두 건물간을 연결시킨다.

◆욕 스트릿과 프론트·스트릿 남쪽에 40층짜리 건물 4개를 지어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까지 뻗친다.

◆심코·스트릿에 분수, 플라자, 거대한 풀, 스케이트장과 식당, 극장등을 집중시킨 낮은 상업용 건물들을 짓고, CN타워 바로 동쪽에 주택용 건물을 짓는다.

◆CN타워 서쪽 개발을 맡은 CN회사는 프론트·스트릿 남쪽의 스파다이나·애비뉴를 넘쳐 상가지역으로 만든다.

◆포틀랜드와 배서스트 사이는 주택지나, 학교, 박물관, 공원부지로 쓴다.

◆CN회사는 또 이미 로이·톰슨·홀 남쪽에 새 본부건물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CBC에 로이·톰슨·홀 남쪽 터를 CN에 넘기는 대신 스파다이나 서쪽 가디너북쪽에 새 CBC건물을 건축비를 받지 않고 지어주겠다고 제의했다. CBC는 건축비없이 건물을 가질 수 있다.

"단풍을 찍읍시다"

●―제7회 사진촬영대회 금주말로 박두 ―●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사진대회가 금년에는 단풍이 보기 좋은 보이드·콘저베이션·팍에서 열립니다.
피크닉겸 가족동반, 공원에 나오시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맑은 렌즈에 담아봅시다.

때 : 1982년10월2일(토) 상오11시
곳 : 보이드·콘저베이션·팍
(Boyd Conservatin Park : on Islington, HWY 7북쪽)
부 문 : 칼라·흑백·스라이드
크 기 : 8×10이상
출품마감 : 10월30일

이번 촬영대회에는 3명의 교포미녀가 모델을 섭니다.
● 지난 80년(제6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이며, 모국 미인대회에서 「포토제닉상」 수상한 허윤정양.
● 올해 82년(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이며, 모국 미인대회에서 「향토미녀상」을 수상한 함승희양.
● 같은 82년(제7회) 캐나다 미스 코리아 「미」의 박은희양의 세 미녀는 카메라맨들의 렌즈에 미와 정서를 담뿍 안겨줄 것입니다.

◆제6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 허윤정양.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진」 함승희양.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미」 박은희양.

참가자격 : 국적불문(단, 사진협회임원, 한국일보직원및 프로 사진작가 제외)
참 가 비 : $10(칼라필름1통 제공)
시 상 : 1등 부상 나이콘카메라 1대·기타 6등까지 시상함
＊ 선착순 1백명에 한함

◈문의및 접수처 :
●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전화 : 533-2361)
● 전경수(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 킴스카메라(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 새한칼라(630 Bloor St. W. 전화 : 535-7772)

주최 : 한인사진협회·한국일보사

토론토의 이모저모 ③

1788년 토론토로 명명

●지명유래

토론토는 원래 휴런호 지역에 거주한 안디안 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의미는 「모이는 장소」 또는 「가득함」을 뜻한다.

1788년 로얄·엔지니어스호의 가드·만 선장이 지금의 하이·파, 브로드뷰·에비뉴, 브루어·스트릿등 3개지역을 답사한후 이지역을 토론토라고 명명했다.

5년후 존·그레이브스·심코총독이 죠지3세의 아들인 요크공작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토론토라는 이름을 요크로 바꾸었다.

그러나 1834년 타운·오브·요크가 시가 되자 다시 토론토로 환원했다.

토론토시가 위치한 땅은 1788년 미시사가 인디안에게서 사들인 것이며 이를 매입하는데 든 가격은 149통의 상품, 담요, 옷감및 도끼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죠지·영경의 이름을 따서 지은 영·스트릿은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로 토론토·아일런즈 맞은편에 있는 퀸스·키에서 출발하여 서북쪽으로 달려 온타리오와 미네소타의 경계선을 이루는 레이니강까지 이르는 장장 1,896.2Km에 달한다.

세계제1차대전 직전까지만해도 여름별장지대였던 비치지역은 우드바인·애비뉴와 킹스톤·로드남쪽에 위치한 빅토리아·파크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부동산소개업자들은 킹스톤·로드 북쪽지역까지도 아퍼·비치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비취스지역에 거주하는 일부주민들은 아퍼·비치스를 비취스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해변을 따라 널판지를 깔아놓은 보드워크는 3Km에 달하며 이 길을 따라 매일 수천명이 죠깅을 하며 호수 건너 미국의 시라큐스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원래 팔러먼트·스트릿과 돈(the Don)사이의 지역인 캐비지타운은 이 지역에 거주하던 아일랜드인들이 정원앞 잔디밭에 배추를 심은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현재에는 이 지역이 블루어 북쪽까지 뻗쳐있으며 배추보다는 상추를 기르는 아름다운 주택들이 즐비하다.

어퍼 캐나다(Upper Canada)의 첫 대법관이었던 윌리암·오스굿씨의 이름을 딴 오스굿 홀은 150년전에 설립되었으며 철울타리에 있는 우습게 생긴 대문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가축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하이팍내에 있는 그래너디어 폰드(Granadier Pond)는 지금은 포트욕인 올드 포트에 주둔했던 근위 보병부대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영국의 제8킹스 레지먼트의 근위병 1개중대가 요크전투에서 미국소총부대와 격전, 사우스 파크데일 언덕에서 많은 전사자를 냈다.

토론토항구 맞은 편에 있는 토론토 아일런즈(토론토군도)는 1857년 폭풍으로 이스튼 갭(Eastern Gap)이 형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군도는 7천년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보고있다.

원래는 지브랄타 포인트에 있다가 지금은 센타 아일랜드와 핸런스 포인트사이에 위치한 등대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같은 소문이 나돌게 된 배경에는 등대건물 안에서 해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해골은 최초의 등대지기인 J.P. 라멘무러씨의 것으로 그는 1815년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론토에 있는 공원중 가장 큰 하이팍은 모나코 국가전체보다도 더 크며 하이팍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공원이기 때문이다.

에비뉴·로드, 블루어스트릿 웨스트, 부룬스위크 애비뉴, 데이번포트·로드등 4개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넥스(Annex)는 아마도 이 지역이 이 도시에 처음으로 합병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1887년 212.8에이 가 합병되었으며 20년후에 에비뉴·로드서쪽 29.3에이커와 다시 2년후에 붙드윈 단지가 추가되었다.

스파다이너는 원래 스페디나로 발음되었는데 그 뜻은 「땅이 갑자스레 솟아난다」라는 인디안어에서 유래되었다.

블루어·스트릿은 헌트리·스트릿 골짜기에서 Farmer s Arms Inn이라는 숙박시설과 양조장을 운영한 조셉·블루어씨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더퍼린·스트릿은 1872년부터 1878년까지 총독을 지낸 더퍼린경의 이름에서 본딴 것이며 더퍼린은 1884년에 브르크톤과 1889년에 파데일을 합병하기까지는 토론토의 서쪽경계지역이었다.

유니온 기차역은 1919년에 완공되었으나 1927년까지 개통이 연기되었다. 그 이유는 유니온 철로육교가 완공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외부는 석회석에 내부는 미국 테네시에서 수송해온 대리석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로비 크기는 넓이 250피트×86피트4인치에 높이는 88피트이다.

이토비콕은 원래 토비쿡(Toby Cook)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아마도 그말의 어원은 "Wah-do-be kaung"이라는 인디안 말에서 유래한 듯하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77>

얼굴없는 死者 ①

大田驛 수하물 창고서 사람 머리가…

12월10일 낮 12시 조금 지나 대전역 앞에 있는 파출소로 두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한 사람은 역원 차림이었고, 또 한사람은 노무자 같았다.

『쥐약을 자셨나? 무슨 일이요?』

숨이 턱에 차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순경 하나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사사사…사람 머리가…』

역원이 먼저 말을 꺼내다 말고 침을 꿀꺽 삼켰다.

『찬찬히 말해봐요. 숨을 돌리고 찬찬히.』

순경들의 시선이 일제히 역원에게 쏠렸다.

역원은 늙은 노무자를 힐끗 보고나서 다시 말했다.

『사사…사람 머리가 발견 됐읍니다!』

『어디서?!』

『수하물 창고에서 발견됐읍니다! 바로 이 양반이 발견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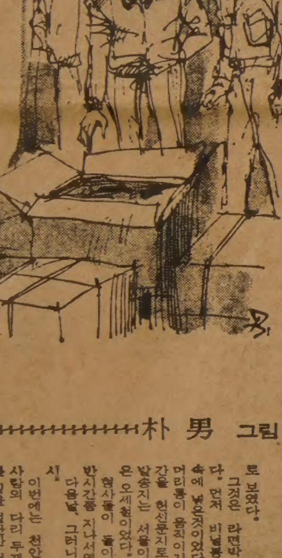
역원은 노무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노무자는 무슨 죄나 지은듯이 모자를 벗어들고 머리를 숙였다.

『예, 제가 발견했읍니다요. 냄새가 지독히 나기에 이상해서 풀러보았더니 사람머리가 들어있었읍니다요. 어떻게나 놀랐던지…』

『가봅시다!』

소장이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순경 두명이 소장 뒤를 따라붙었다.



朴男 그림

잠시 후 수하물창고에 들어선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을 헤치고 문제의 수하물에 접근했다. 겨울철인데도 악취가 풍겨왔다.

파출소장과 순경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속을 들여다보다가 외마디 신음을 토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애송이 순경 하나는 입을 틀어막고 옉옉거리다가 급기야 구석으로 달려가 토하기 시작했다.

신고자들의 말대로 그것은 정말 사람의 머리통이었다. 검은 머리털에 덮인 머리통이 헤쳐진 비닐봉지 사이로 보였다.

그것은 라면박스 속에 넣어져있었다. 먼저 비닐봉지로 싼 다음 박스속에 넣은것이었다. 박스가 컸으므로 머리통이 움직이지 않게하려고 빈 공간을 헌신문지로 채워넣고 있었다.

발송지는 서울이었고 발송자의 이름은 오세철이었다.

형사들이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반시간쯤 지나서였다.

다음날, 그러니까 12월11일 오전10시.

이번에는 천안역 수하물 창고에서 사람의 다리 두개가 발견되었다. 무릎 밑을 절단한 것들이었다. 역시 서울역에서 발송된 수하물이었는데 포장이 찢어지는 바람에 내용물이 드러난 것이었다. 발송자의 이름은 대전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오세철이었다. 역시 비닐봉지에 싸여 라면박스속에 넣어져있었다.

대전과 천안에서 연이어 사람의 머리통과 다리가 발견되자 경찰은 긴장했다. 더구나 발송자의 이름이 같은데에 주목했다.

즉시 전국 주요역 수하물 창고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다.

「발송자 오세철의 수하물을 찾아라」—이것이 주요역을 끼고있는 전국 경찰에 내려진 최초의 지령이었다. 동시에 오세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독자의 광장>

불효

김영무

부모님, 그리고 따스한 형제들을 뒤로하고 김포공항을 떠나오면서 얼마나 커다란 불효를 드렸는가. 이곳 토론토에 정착한지 십여년이 가까와 오고 있다. 생활이 바빠지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 생각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일년에 몇차례의 편지 정도로 나자신의 불효를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않았던가. 연전 고국엘 다녀오곤 몇달후 갑자기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임종을 뵙지 못한 이 커다란 불효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뼈아픈 후회를 쌓게하고 있는가. 이제는 가신 분. 불효며 효도며 이제다 부질없는 넋두리 아니겠는가. 과연 내 아이들 생각하는 십분의 일이라도 부모를 위한 솔직한 마음을 드렸더라면 이처럼 후회가 될까.

이제 한분 모친을 위해서 내자신이 해야할 일은 이곳 생활에서 뻔하지 않겠는가. 마침 형님의 초청으로 그분께서 뉴욕엘 와 계신다. 십여일이나 지나 찾아뵈운 게 시작부터가 잘못된것 아닌가. 우선 가게에 매달리다 결과는 또 불효가 되고 말았지 않겠는가. 다음주에는 처와 아이들을 내려보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즐거웁게 해드리려고 한다. 그런후에 이곳에도 모셔서 늦은 효도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토론토 거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968-1543·R)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진주 眞珠 목거리
특별할인봉사
○본점에서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일절, 녹용제품, 할인판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 테프와 비데오 테프 다량입하!!
피에르가르뎅* 지반시 Y셔츠
귀국 선물 용품
빅·세본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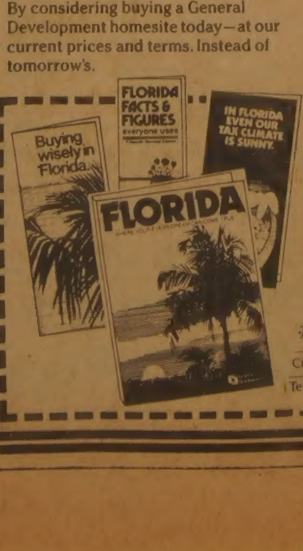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661-1625
TORONTO office
〈Mr. Terry Hill〉
혹은 Collect call
☎: (1)-935-7175(B)
935-2325(R)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저를 아끼시는 뭇어른·친지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 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 「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제게 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정번헌 배상

샤론의「변명」

◇샤론국방상㊧이 베이루트대학살에 대한 격한 비난을 받고 정부입장을 변호하고있다。【UPI】

스스로 무덤 판「베긴」

샤론國防 부인발언 에이탄總長 뒤엎어

"軍部는 우익民兵隊진입 알고 있었다"

「虐殺」…否認서 是認까지의 逆轉드라마

베이루트대학살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관련돼 있는가。 처음엔 딱 잡아뗐다가 방증이 드러나면 마지못해 시인하고, 국방상과 참모총장의 말이 다르고 그러한 모순이 되풀이되더니 마침내 국방상 샤론의 입을통해 대학살을방조했다는 실토가 나왔다。

엎치락 뒷치락 이런 곡절을 두고 예루살렘포스트지는 『베긴수상이 리처드·닉슨처럼 진실을 은폐하려다가 스스로 墓穴을 파고있다』고 평했다。 전개과정이 워터게이트사건때와 아주 닮았다。 닉슨이 그랬듯이 베긴도 결국 권좌를 내놓아야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싯점에서 그모순의 전말」을 엮어보면 이렇다。

샤론국방상은 22일 레바논 우익민병대가 이스라엘군과 제휴아래 작전을 하러 팔레스타인난민촌에 들어갔다고 의회에서 시인했다。 샤론의 의회발언은 그휘하의 참모총장라파엘·에이탄중장의발언과 전적으로 모순되었다。 대학살소문이 처음새어나온 지난18일 에이탄장군은 팔랑헤민병대가 이스라엘군의 사전승인을 받기는커녕 통고조차 하지않고 난민촌에 들어갔다고 단언했었다。

에이탄장군의 말은 그러나 난민촌부근에 배치된 장병들이 곧바로 뒤엎었다。 한고위장교는 20일 브리핑에서 군부는 우익민병대의 진입을알고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군과조정아래 작전을 벌인것은 아니라고 잡아뗐다。

이말은 다시 샤론국방상이 뒤엎었다。 샤론은 이스라엘의 북방원정군사령관아미르·드로리장군이 지난16일 팔랑헤민병대사령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16일이라면 대학살이 무참하게 시작된날이다。 바로 그날 베이루트주변주둔 이스라엘군 사단장과 민병대 연락장교가 만나「민병대의 샤틸라난민촌 進入작전을 조정했다고 샤론은 말했다。 두 군대 지휘부가그날 2번이나 만났다는 이야기다。

샤론은 민병대측 요청에따라 사브라난민촌 상공에 조명탄 수백발을 터뜨렸다고말했다。

민병대의 진입경로에 대해서도 국방상과 참모총장의말은 달랐다。 민병대는 이스라엘군이 배치돼있지않은 난민촌총쪽에서들어갔다는것이에이탄총장의 말이다。 이에대해 샤론국방상은 민병대가 이스라엘군이 배치돼있던 서쪽과 남쪽에서 진입했다고했다。 또 국방상은 이스라엘군이 민병대의 학살을 제지한 때를 17일이라고 밝힌데 반해 참모총장은 18일 아침까지도 난민촌안에서 무슨일이 나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녀자 어린이에 관한 말도 다르다。 샤론국방상은 민병대가 그런 만행을 하리라곤 꿈에도 몰랐다고 했으나 이스라엘신문들은 바로 그런 위험때문에 고위장교들이 샤론에게 민병대의 난민촌進入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레비부수상역시 16일 각의에서 기독민병대와 팔레스타인난민이 접근하는 경우 벌어질 위험한 사태를 경고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베긴내각에서「時限폭탄」이라는 별명을 지닌 샤론국방상이 정부내 반론을 무릅쓰고 대재난을 불러들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때문에 샤론은 의회에서 「샤론씨、대답해보시오、시[illegible]이라도 빤히 내다볼수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저지르고 말았읍니까」라는 공박을 받았다。

같은날 의회에서는 조사위구성을 요구한 앰넌·루빈스타인의원의 색다른 증거가 주목을 끌었다。 이스라엘 육군주간지 바마하네誌 9월1일자에 실린 팔랑헤 민병대 장교와의 회견기사였다。 그기사에서 장교는「이제 우리가 묻고자하는 것은 강간과 살인 둘중에서 무엇부터 먼저 할것이냐」라고 말한 내용이 제목으로 뽑혀져 있었다。

군잡지에 나온 그만한 내용조차 정부가 모르고있었다는건 말도 안된다。 샤론은 민병대학살이 17일하오에 중지됐다고 말했다。 이역시 반박거리다。 현장부근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은 그맘때 민병대 2진이 베이루트 공항에 집결、그날밤 난민촌으로 투입되는걸 목격했다。

민병대의 공항집결사실은 이스라엘이 국경지대에있던 하다드소령휘하민병대를 수송해다가 학살현장에 투입시켰다는 의혹까지 더해주었으나 이대목은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고있다。

초소숙두 이스라엘병사들은 난민들 부녀자 노소할것없이 30여명씩 줄을 세워놓고 처형이라도 하듯 총살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태를 추적한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진상규명이 이스라엘을 궁지에서 구제하려는 주장이다。

예루살렘 포스트지는 지적한다。『베긴수상은 결단코 진상공개를 피하고 있다。 그는 자기주변의 생생한 事實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간다』

在美 유대인단체연합회장 알렉산더·신들러는 워터게이트사건때처럼 조사위원회 구성 거부는 곧 유죄를 시인한다는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조사할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긴수상의 주장이지만 그런태도는 갈수록 베긴개인뿐아니라 유대인 이미지에깊은 상채기를 내고있다。 【예루살렘24日韓聯=特】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3·1운동때 堤岩里서 희생「虐殺유골」발굴

구덩이속에 옹기종기…

38式銃彈·敎會용품도 나와

文公部、63년전 23位유골로 추정

◇되찾은 護國영령 堤岩里 순국지사들의 유골이 발굴된 현장。 문공부발굴단이 작업사흘만에 순국지사들의 유골을 찾아냄으로써 63년이나 떠돌던 영령들이 비로소 눈을 감을수있게 되었다。

1919년 水原堤岩교회에서 참혹하게 학살된 순국지사들의 유골이 24일하오 경기도華城郡鄕南面梯岩里공동묘지에서 문공부조사단(단장 金東賢)에 의해 발굴됐다。

21일부터 堤岩里 순국지사들의 유해발굴작업에 착수한 문공부는 이날 유구속에 유골이 옹기종기 놓여있는 것을 발견、이 부근을 집중적으로 조사한결과 노출 무덤에서는 38구경 총탄을비롯、단추、교회에걸었던 램프날을 매달때사용한 쇠시못등을 파냈다。

문공부관계관은 총탄과 교회에서 사용했던 램프 철사못등이 유골과함께 발굴된것으로 미루어 63년전 학살당했던 순국지사23위 유골일것으로 보고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본디 발굴지역에서 10~20m 떨어진 지점。 당시 학살현장을복원했던 마을 고노 崔應植옹(89)이 정확히가르쳐주어 유골발굴에성공하게된것이다。

堤岩里사건 堤岩里사건은 3·1운동이 일어난지 한달보름뒤인 1919년 4월15일 경기도 華城郡鄕南面 堤岩里 두렁바위마을에서 주민29명이 예배당에 감금된채 일본군에의해 학살된 사건。

일본군 제20사단39여단 78연대소속 일본군들은 3·1운동주동자 29명을 초가마을 예배당에 끌고가 가둔뒤 불을지르면서 집중사격을 가해 처참하게 학살했었다。

이들중 밖으로 뛰어나오다 살해된 6명은 가족들에의해 장례가 치러졌지만 나머지 23명의 순국지사들은 유해마저 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은채 공동묘지에 내팽개쳐둣묻혀 버렸다。

多國籍軍 武力사용權

美·佛·伊정부 괄難民보호·自衛위해 부여

【워싱턴·파리·로마雅=総】 학살사태에 뒤이어 레바논에 파견된 美·佛·伊다국적평화군은 각각 自衛와 팔레스타인 난민보호를위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경우 무력을 사용할수있는 권한을 본국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23일 각국정부가 발표했다。

헨리·케도美국방성대변인은 이날 1차파병때와는달리 이번에 파병된 8백명의美해병대는 항구지역 깊숙한곳에 배치될것이며 만약 전투가발생한다면 1차적으로 레바논軍이 투입될것이지만 美해병대에도 自衛를위한 무기사용이 허용될것이라고 밝혔다。

또 렐리오·라골리오 이탈리아국방상은 이날 하원외교국방위합동회의에서 증언을 통해『레바논에 파견된 이탈리아군이나 또는 이탈리아군의 보호를 받게된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공격을 받을경우 이탈리아군에는 무력을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클로드·셰이송 프랑스外相도 이날 TV회견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밝혔다。

內務委 政治議案논란

국회 어제5개常委 野、地自制案 우선처리 주장

국회는24일하오 내무·經科 상공·교체·건설위등 5개상임위를열고 계류중인 일반법안과 청원등의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무위에서는 이날 야당측이 地自制法案등 의원들이 제출한 政治議案부터 먼저 上程심의하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벌이다가 결론을 얻지못하고 오는27일상오 3黨간사회의에서 결정키로했다。

국회는 토요일인 25일과일요일인 26일 양일간 常委활동을 쉬고 오는27일부터 29일까지의 사이에 법사 외무 경과 농수산 상공 교체 건설등 7개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92건의 의안과 73건의 청원등 모두 1백65건을 심의한다。

내무위는 이날 공원지역 지정원제에 관한 청원등 13개청원과 새마을금고법안 심사小委 중간보고를 듣기에앞서 朴寬用 柳寅範(이상民正) 趙炳奎의원(국민)등 야당의원들이 계류안건중 정치의안인 지방자치제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것을 주장했으나 民正黨측반대로 13개 청원심사를 위한 10人小委를 구성하고 새마을 금고법안심사小委중간보고만을 들었다。

경과위는조달기금법개정법률안을、상공위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안등 3개 법안과 2개청원을、교체위는 국제관광공사법개정안등 2개법안을、건설위는 국토관리법개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였다。

제마옐에 就任축전 全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24일 레바논의 새대통령으로취임한 아민·제마옐대통령에게 축전을보내『우리 두나라의 友好관계가 양국민의 상호이익을 위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貿易박람회 개막

어제서울서 10억弗 商談기대

82서울 국제무역 박람회가 24일상오10시 서울江南區三成洞 한국종합전시장에서 金相浹국무총리、金埈成부총리、金東輝상공장관、尹子重貿公사장등 국내외인사 4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막됐다。

오는10월18일까지 열린 이 박람회에는 국내외의 9백38개업체가 참가하며 박람회를 주관하고있는 貿公측은 행사기간중 1만여명의 바이어를 유치、10억달러의 상담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일반관람객은 평일은 상오11시부터、일요일은 상오9시부터 입장하는데 입장료는 일반6백원、중고교생、경로우대증소지자는 3백원이다。

한편 이 박람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은 각기 自國의 날을 마련、각종행사(매일 상오11시)와 영화등을 상영하게된다。

●25일=스웨덴의 날▲27일=美國의 날▲28일=이탈리아의 날▲29일=泰國▲10월1일=民俗祭▲2일=전국노래자랑▲4일=스페인의 날▲5일=노르웨이의 날▲7일=캐나다의 날▲11일=나이지리아의 날▲12일=파키스탄의 날▲13일=日本의 날▲15일=핀란드의 날

社會漫評

實力을 기르자!

親知에 한국일보를 보냅시다

한국일보 533-2361

제마옐 레바논 大統領 취임

【베이루트SPA=聯】 지난 21일 의회에서 임기6년의차기레바논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민·제마옐대통령당선사의 취임식이 23일 동베이루트교외에있는 한 군사학교에서거행됐다。

엘리아스·사르키스대통령의 뒤를이어 신임대통령으로 정식취임한 제마옐 신임대통령은 취임사에서『폭력의 악순환을 종식시키는데 최대의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秋穀 수매값 引上을 촉구

국민당、政府에

국민당은 24일상오 중앙당사에서 黨務會議를열고 금년도 秋穀수매가에대한 黨의방침으로 수매가를 작년의 5만2천1백60원보다 18.3% 인상한 6만1천7백10원으로 결정할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釜山市 신평工團에 國內최대 鍍金공장

대한조선공사계열회사인 瑞興化學(대표 南治浩·사진)이 부산시신평동 공업단지안에 국내최대규모의 합金鍍金공장을 건립、24일 준공식을 가졌다。 瑞興은 길이 8m의 대형 鍍金槽등을 새로 갖추고 電氣도금시설등을 갖춰 각종선박건조용 鍍金과 파이프、철탑등 철구조물을 鍍金한다。

地平線

레이건外交는「힘의 外交」다。 카터행정부가 2년남짓 소련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어려운 협상끝에 가조인한「SALT(전략핵군축회담)Ⅱ」안을 레이건행정부는 발족하면서 휴지통으로 팽개쳤다。 레이건의 保守강경외교는 反共第1주의외교로 불린다。 2차대전후 유럽第1주의로 이어져온 미국의 전통적외교노선을 레이건은 뒤엎고있다。 ▼전통에 도전하거나 벗어나려할때、 잡음이 생긴다。 시베리아와 英·佛·獨등 西歐를 연결하는 가스管건설을 둘러싼 美、西歐간의 不協和音은 미국이 유럽第1주의에서 벗어나 反共、反蘇第1주의로 방향을 돌린데서 빚어진것이라고도 할수있다。 미국이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져있는 西歐우방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몰라서 미국기술과 장비를 소련에 수출한 西歐회사에 경제제재조치를 취한것은 아니다。 가스管부설협조가 소련의 어려운外貨사정을 도와주고、또 그것이 건설된후에는 西歐가 소련의 에너지공급에 매달리게 된다는데 미국은 더 초점을 두는것이다。 ▼소련은 그 管 전설공사에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다。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은 소련내 정치 사상범들뿐 아니라 소위 베트남의「異端分子」들까지 시베리아로 끌려갔다고 미정보소식통은 최근 전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군사 경제원조의 빚을진 베트남의 하노이 정부가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약10만명의 베트남 사람들을 시베리아의 凍土帶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 10만베트남인들은 베트남전쟁때 사이공越南정부 지지자로서 베트콩에 항거한 전력자들이라 한다。 ▼소련은 세계뉴스의 한 초점으로되고 있는 가스管건설공사에 다시 그 악명높은 강제노동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세계에 공개되는것을 물론 원치 않을것이다。 때문에 시베리아 어떤지역에서 어떤형태로 강제노동이 실시되고 있는지는 새어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무성人權局은 이무서운 사실이 實在한다는것을 어렴풋이 알게되었다고 흘렸으며、 국방성정보담당자들도 강제노동의 증거가 드러나고있다고 밝혔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의「志願者」들이 시베리아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노동하고 있다는것을 크렘린 소련당국이 감추지 않았다는것은 흥미롭다。 ▼베트남전쟁때 越南의 強者로 불렸던 구엔·반·티우나 구엔·가오·키는 각각 영국과 미국에 망명한것으로 알려져있다。 越南亡國의 悲劇이 17도선 이남의 베트남 민중들에게로 돌아간 것일까。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새 예루살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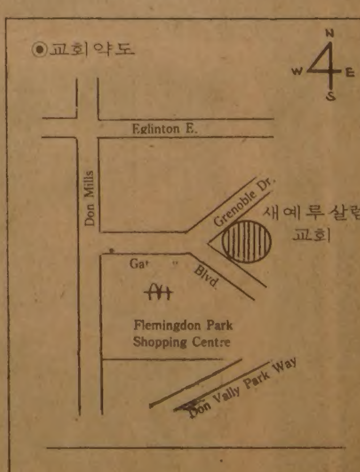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 · 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등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 사회자입니다. 그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 프로그램 "CIRCLE SQUARE"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 · 고등 · 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교회약도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 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불럭 전에있는 푸레밍돈 · 콰 샤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幕오른 82서울國際박람회…「紙上관람」

"技術尖端" 겨루는 「商品올림픽」

建國 초유… 41國 9백38業體 참가

서울 永東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오는 10월18일까지 25일간 계속될 82서울국제무역박람회(SITRA)는 국내 6백76개업체와 해외 40개국 2백62개업체가 참가해서 국력과 社勢와 품질과 기술을 겨루는 세계상품의 올림픽 경기장이다. 일상 생활용품에서 중화학공업제품 항공기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첨단적인 제품이 선을보이며 반도체나 유전공학등 미래산업을 통한 인류의 무한한 꿈을 펼쳐보이고 있다. 또한 건국이후 최대의 무역잔치답게 규모도 클뿐아니라 참가업체들이 열띤 상품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최측인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박람회기간중 1만명의 외국 바이어들과 1백만명의 국내 관람객들이 줄을 이을것으로 보고있으며 무역상담만도 수출 10억달러와 수입 5억달러등 우리돈으로 1조원이상의 거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무역박람회의 주제는 「내일의 번영을위한 광장」. 국제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국민에게는 번영하는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來18일까지 25일간

박람회장은 한국종합전시장과 인근 총무처부지등 6만평위에 전시장 1만5천여평과 부대시설 2천2백평등을 마련하고 옥내외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 총무처부지에 새로 지은 건물안에 설치된 국내관은 크게 5개관으로 나뉜다. 1호관엔 기계및주방용구류, 2호관엔 전자및 전기기구류, 3호관은 섬유류, 4호관은 공예품및 잡제품, 2층의 5호관엔 가구및 스포츠레저용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1호관에는 산업용 기계류및 부품 36개업체, 기타기계류및 부품 31개업체, 주방용구 19개업체, 시계류 10개업체, 운반기계류및 부품 86개업체, 공구류 8개업체등 1백90개업체가 출품하고 있다.

기계류는 三星精密이 지난번 국산전투기를 생산할때 썼던 엔진 항공기부품을비롯해서 자동차 방적기 시계류 포장기 선반 보일러 연삭기 프레스기기 공작기계 재봉틀 의료기기 광각기기 운반기기 선박부품등 거의 모든종류가 망라되어있다. 주방용품들도 코피세트주전자 식기 접시 양식기등 갖가지 종류와 스테인리스 구리 도자기등 다양한 소재의 상품들이 진열돼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63개업체서 엔진 電裝品 브레이크 클러치 밋션 차체부품 액세서리등 3천여종류가 전시되고 동력전달장치를 통해 현장서 작동하기도 한다.

2호관엔 전자전기제품및 부품 49개업체 상품경쟁을 벌이고있는데 새로운 제품도 많고 흥미있는것들이 눈에띈다. 특히 금성사 삼성전자 대한전선등 家電제품생산 3社의 신제품경쟁이 심하다.

관람객 百萬명예상

금성사종합관엔 빌딩의 구내통신관리, 방범, 방화, 에너지관리, 공기조화및 전력관리등을 한군데서 조절할수 있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과 오디오 TV VTR 카세트등 4가지 설비를 한세트로 묶어 1개의 화면으로 한꺼번에 4가지의 프로그램을 즐길수있는 새제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관엔 말하는 자동판매기, 목소리로 조종하는 TV, 팔을 밀어 넣으면 혈압이 자동적으로 재어나오는 컴퓨터혈압계등이 있다. 대한전선관엔 光通信시스템을 비롯해서 TV화면을 통해 상대편을 보면서전화할수있는 텔리폰TV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개막기념 가요쇼 개막첫날인 24일하오 박람회장의 야외무대에서 가요쇼가 진행되고 있다.

3호관에는 61개업체가 각종직물및 의류제품들을 전시했다. 뿐만아니라 섬유관엔 25평의 패션쇼무대가 설치되어있어 매일하오 1시30분부터 1시간씩 패션쇼를 연다.

4호관에는 악기류 6개사, 화장품류 7개사, 공예품류 12개사, 신발류 5개사, 식품류 9개사, 도자기류9개사, 신변세화류 24개사, 완구및 인형 42개사, 기타잡제품 27개사, 각지방별 민예품 88개사등 모두 2백29개업체가 각각 특색있는상품들로 진열했다.

국내관 중앙2층의 5호관에는 건축자재류 24개사, 스포츠레저용품 13개사, 가방류 11개사, 문구및 사무용기류10개사, 가구류 22개사등 총80사가 출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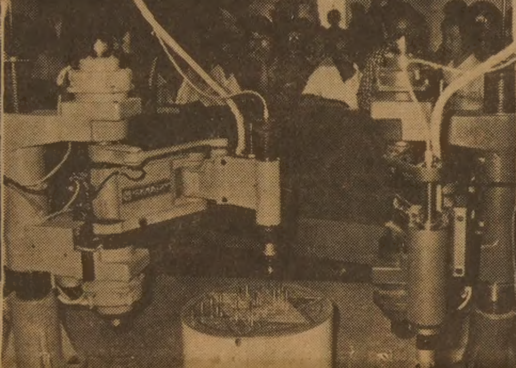
국내관에는 국내제품으로 농수산식품을 제외한 모든 수출제품과 유명상품이 진열되어있는 셈이다. 또한 국내관에는 올림픽홍보관과 관광홍보코너도 설치되어있다.

올림픽弘報 코너도

이밖에도 KOEX부지에 설치된 옥외전시장에는 韓國重工業을비롯, 起亞産業 東亞自動車 江原産業등 25개업체가 자동차류 일반기계류 컨테이너 중장비 요트 건축자재등을 선보이고있다.

KOEX 1층에 설치된 국제관에는 美洲지역 10개국 72개업체, 유럽지역 15개국 88개업체, 아시아및 濠洲지역 8개국 97개업체, 아프리카및 중동지역 4개국 4개업체, 기타지역 3개국 3개업체등이 전시에 참여하고있다. 대부분이 회사단위로 참가하고 있으며 국가단위로 참가한것은 美國 日本을 비롯해서 15개국 뿐이다.

◇스위스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자수용 자봉틀 성능을 실험해 보이고 있다.



◇將棋두는 로보트 럭키그룹 독립관의 로보트가 서양장기를 두고 있다.

이들 외국업체가운데는 유명업체들이 많은데 美國의 IMB社는 전산기및 사무용기기, 보잉社, 노드럽社 휴즈社는 모형항공기와 비행기부품, 유니언카바이드社는 공업용가스및 화공약품, 캐터필러社는 트랙터및 중장비, 모토롤라社는 통신기기를 출품했다.

國內館 5개로구분

또한 西獨의 엘바社가 중장비류, 도카社가 건설기자재, 필리칸社가 만년필및 문방구류, 로트링社가 제도용구및 문방구류를, 프랑스의 베리社가 크리스탈제품, 덴마크의 레고社가 조립식완구, 伊太利의 핀메카니카社가 항공기 자동차 철강제품,

스웨덴의 사바스카니아社와 볼보社가 력및 특수차량, 캐나다의 원자력공사(AECL)가 핵발전설비 노던텔리콤社가 전자통신기기를 내놓고있다. 日本업체는 31개사가 참가하고 있는데 住友商事는 사무용기기, 伊藤忠이 소형컴퓨터, 丸紅飯田이 기계류, 三菱이 자동차, 日商岩井이 플래스틱 카메라 운동구류, 小松이 건설중장비를 전시하고 있다. 이들 외국업체들은 저마다 첨단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한다.

6萬坪광장에 國內·해외·獨立館세워
생활용품에서 유전공학까지
即席개봉 福券·直賣場설치·매일 노래잔치

이번 박람회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現代 三星 大宇 럭키 國際 曉星 鮮京 雙龍 롯데 韓國火藥등 10개재벌 그룹들이 각기 재력과 아이디어를 자랑하듯 특색있는 독립관을 지어 기업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점이다. 이들 10개 독립관은 회사 제품선전보다는 기업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그룹별 기업특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각 독립관에는 모두 多畵面처리 영상시설이나 초대형화면을 설치해놓고 기업홍보영화나 기업의 미래상등에 관한 필름을 돌리고 있다. 흥미를 끌고있는것으로는 雙龍館의 국민학생이 기구를 타고 국내명승지와 산업시설을 돌아보고 「희망의 나라」, 鮮京館의 「고래의 방황」, 롯데館의 「풍요를 창조하는 손」, 韓國火藥館의 「우주생성」, 大宇館의 「인류의 발달사」, 三星館의 「풍요속의 세계 이모저모」 등이 꼽히고 있다.

國內재벌들 宣傳戰

또한 독립관의 흥미있는 전시물로는 럭키관의 장기두고 만화그리는 로보트와 모든 가정살림을 컴퓨터로 조종하는 홈오토메이션, 三星館의 말하는 로보트와 수학공식 카드게임하는 컴퓨터놀이, 國際館의 길이 5m 높이 2.1m 폭1.8m 무게 1.5톤짜리 초대형 신발과 일생 운수를 점쳐주는 컴퓨터, 鮮京館의 무게1.5톤짜리 비디오테이프등이있다. 또 曉星館에서는 레이저광선을 이용해서 미래산업에 관한 화면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롯데관에서는 低落差수력발전 시스팀을 직접 가동하고도 있다.

특히 관심거리인 박람회장내 직매장에선 국내32개업체서 공예물 직물 의류 도자기 가정용품 전자제품 신변세화 문방구 완구류 식품류를 무제한으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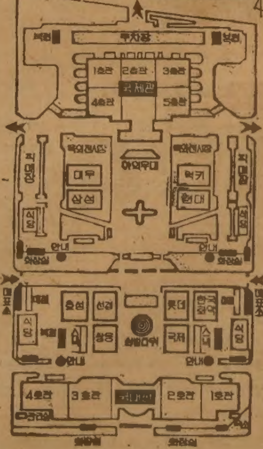
家事처리 컴퓨터도

그러나 해외제품은 개당 1백달러이하짜리에 대해서만 업체당 20만달러 범위내에서 팔게되는데 펠리칸 만년필, 로트링필기구, 코닝 유리제품, 노리다께 그릇, 베리 크리스탈등 세계유명제품을 비롯해서 운동용구, 잡화, 직물, 의류, 인조보석, 벽시계, 공예품, 貝類제품등을판다.

이밖에도 박람회장의 공연장에선 매일 하오2시부터 4시사이에 유명가수의 가요쇼를 비롯해서 민속제 노래자랑등이 열리며 美國 日本 스웨덴등 11개 참가국들은 참가국의날 행사를 마련, 민속공연 영화상영등도 한다. 또한 회장내 복권 판매장에서는 즉석에서 등수를 알아볼수있는 즉석 개봉식 복권 2백원짜리 3백만장을 파는데 1등은 5장으로 당첨금이 1천만원이다.

【崔相泰기자】

博覽會場약도



메아리

우스운 버스

「가만히 오랫동안 바라볼수 없는것이 있다. 태양과 죽음」

라·로슈푸코의 箴言이다.

가만히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참우스워지는것이 세상에는 많다. 가령 사람의 귀. 상대방의 귀를 한참 노려보고 있노라면 귀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무슨 괴물같아진다. 우습다.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버스를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피식웃음이 나온다. 매일 수없이 보는 버스가 새삼스럽게 우스울것이 뭐냐고 하겠지만 늘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유심히 오랫동안 한번 바라보라. 우스워질것이다.

우스운것은 버스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가는 사람들이다. 버스를 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 우스운것이 아니다. 그 많은 승객들이 약속이라도한듯이 한결같이 아무 짓도 안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우습다. 특히 붐비지도않는 낮시간에 좌석버스를 타고가면서도 모두 우두커니 앉아만있다. 한두대만 그런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버스란 버스는 다 그렇다. 승객들 가운데 굳이 무슨 짓을 하고있는 사람을 찾자면 자고있는 사람들이다. 이사람들을 말고는 아무도 하는일이 없다. 쉬고있는것도 아니면서 아무일도 안하고 있는것은 사람을 우습게 만든다.

아무일도안한다고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폐가 있을는지 모른다.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수있다. 그렇다면 아침신문에 난 팔레스타인 난민의 학살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여름휴가때 다녀온 해변의 회상일까. 집안일의 걱정일까. 온거리를 메우는 버스마다 이런 생각들만 잔뜩 싣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우습지 않을수 없다.

시내버스뿐 아니다. 지하철을 타봐도 그렇고 시외로 나가면서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다. 다들 茫然自失, 가만히 앉아있다.

해마다 口號도 드높게 다가오는 讀書週間이 올해도 24일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잘 안읽는다고 한다. 어느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성년인구중 작년 한해에 책을 한권도안읽었다는 사람이 30·7%나 된다. 이들에게 책을 안읽는 까닭을 물으면 시간부족을 첫째이유로 내세우는 사람이 3명중 1명이다. 나머지 사람에게도시간부족은 둘째 아니면 세째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큰 이유는 「심리적장애」를든다.

서울의 경우, 하루에 각종 차량을 타는 인구는 1백46만명이다. 1인당 하루평균 1.7회 승차를하고 승차시간은 평균 1.5시간이다. 시민 한사람이 하루에 차를 적어도 한번내지 두번은 타서 1시간반을 차안에서보낸다는말이된다. 시민들이 책을잘 안읽는 까닭을 시간부족때문이라고했지만 차 타는 시간은 시간이 아닌가. 차도 차나름이겠고 차타는 시간도 시간나름이기는하겠다. 그러나 책을읽을수없는 출퇴근 시간의 입석버스를 제하더라도 차를 타는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차속의 시간은 썩은 시간인가. 정말 버스를 타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있으면 시간 썩는 냄새가 나는것 같다.

金聖佑 <論說委員>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시간은 버리는 시간으로 치부하는 버릇이 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타고 몇시간간다고 하면 그 시간은 이동에 필요한 動力用시간이지 자기마음대로 할수없고 자기가 어디 딴데 쓰지도 못하는 시간으로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나 그시간은 자기시간이다. 정말 남이 훼방하지 않는 자기만의 귀중한 시간이다.

시민모두가 그렇수는 없다고하더라도 하루에 차안에서 1시간씩만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5백자 1페이지짜리 소설을 1분에 읽는 보통속도면 넉넉잡고 1주일에 한권을 뗄수 있다. 한주일쯤 쉰다고쳐도 한달에 3권의 독서라면 이것은 책을 많이읽는 다른나라의 수준에서도 단연 多讀者에 列한다.

「시간부족」 다음으로 책을 안읽는 이유로 드는 「심리적장애」란 결국 버릇의 문제다. 여자의 핸드백이나 남자 양복의 호주머니는 문고판 책을 넣기위해 있는것이란 심리적전환이 필요하다. 반드시 책이 아니더라도 신문이나 잡지를 차안에서 읽어도 좋고 그것이 읽는 버릇의 시발이 된다. 의외라고 생각되겠지만 읽을책의 가지수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0위다.

차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앉아있는것도 그것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같은생각이라도 그냥 하는 생각은 雜念이 되고 책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은 思索이 된다.

◇魯迅손자와 約婚女 최근 臺灣으로 망명한 魯迅(本名周樹人)의 손자周令飛와 그의 약혼녀 張純華가 24일로 예정된 결혼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있다. 【臺北24日UPI電送=聯合】

호랑이 住民습격
★방國, 주로 물고기잡다

방글라데시의 선더반이라는 울창한 밀림에 살고 있는 호랑이들이 주민들을 습격, 매년 50명가까운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야생호랑이 생태를 연구하기위해 최근 선더반을 방문한 인도의 뱀및 악어공원관리자 로물루스·휘태이커씨는 『주민들이 선더반밀림의 많은 개울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로 희생된다』면서 이것은 호랑이가 생선냄새에대해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기때문이라고 한 강연에서 언급했다는것. 【마드라스=PTI】

社說欄 공백으로
★英메일紙, 인쇄공들파업

영국보건직종사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지원하기위한 전국적인 총파업을 하루앞둔 21일 런던의 우파일간지 데일리·메일이 사설란을 공백으로 남긴채 발행됐다.

메일지의 경영진은 총파업계획에 비판적인 사설을 실으려다 이에 항의하는 인쇄공들의 해명요구를 묵살했는데 화가난 인쇄공들이 그같이 비판적인 사설을 실을수 없다고 주장, 인쇄과정에서 사설을 공백으로남겨놓았다. 【런던=AP】

海外토픽

양쪽肺 모두移植
★의식회복했으나 重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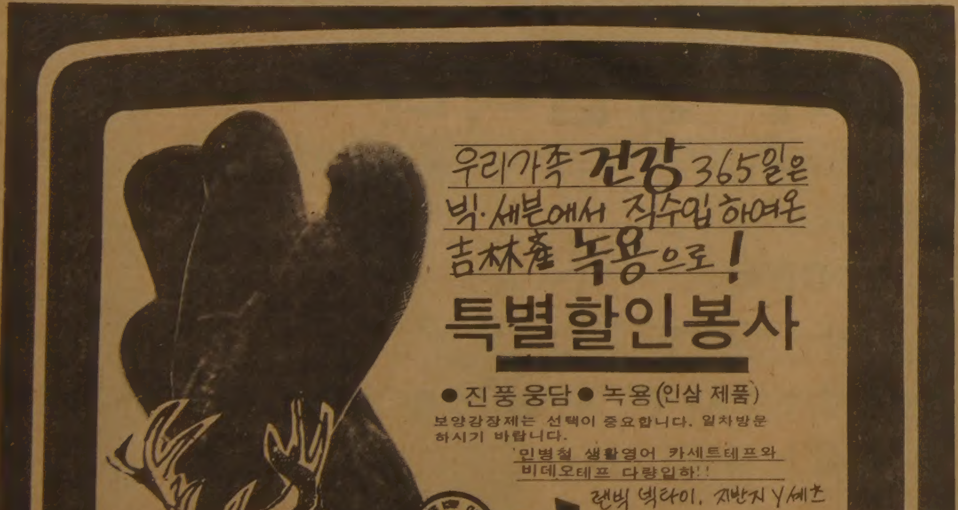
최근 각기 다른 두사람으로부터 2개의 폐를 이식받은 환자가 22일 의식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중태라고 병원대변인이 발표.

폴린·잭슨대변인은 환자인 제임즈·프란첸(31)씨가 아직은 인공허파의 도움으로 호흡하고 있다면서 『경계는 요하지만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

프란첸씨는 유독제초제에 과도하게 노출돼 2개의 허파를 모두 상한뒤 3주전 허파1개를 이식했으며 지난20일 2번째 허파마저 이식받았다는것. 【터론토=UPI】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청소년 문화잔치
우리말 잘하기

교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어를 길러주기 위해 작년에 의해 제2회 우리말 잘하기 및 웅변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0월10일(일) 오후5시
장 소 : 교육회관 (252 Bloor St. W.)

제 목 :	
우리말 잘하기	웅변대회
자유(5분간)	한글을 배워야 할 이유(7분)

등록마감 : 10월7일(목)
연 락 처 : ☎:789－7352

후원 : 각한글학교 · 총영사관 · 실업인협회
한인장학재단 · 한인회 · 외한은행 · 한일은행

공동주최 : 한 · 카청소년 문화협회
토론토라이온스클럽

美에 情婦위자료 論爭

캘리포니아 財閥 故블루밍데일의 숨은 戀人

"생전 평생生活費 지급약속" 婦人상대 千萬弗 청구소송

흔히 不倫관계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한평생 그늘속에숨어살아야 하는 여인들-情婦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한 백만장자와 12년간 관계를 맺어왔던 한 情婦가 최근 생활비 지급이 끊기자 당초에 약속했던 평생생활비 1천1백만달러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백화점체인점을 소유한 백만장자알프레드·블루밍데일의 情婦 비키·모건이 블루밍데일을 상대로 제기한 평생생활비지급청구소송공판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된지3주만인 지난7월 블루밍데일이 위암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소송은 블루밍데일의 미망인 베시와 情婦 모건간의 재산싸움으로 번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있다.

모건양은 재판정에서 지난 12년간 블루밍데일이 「막연한 친구이며 인생의 동반자」였던 자기에게 일생동안 생활비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모건양은 12년전인 열일곱살때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당시 54세였던 블루밍데일을 만나 가까와졌으며 블루밍데일은 이미 기혼녀였던 모건양을 이혼케한후 비버리힐즈의 한 아파트에 살림을 차려주고 매달 1만8천달러씩의 생활비를 지급해왔는데 블루밍데일이 위암으로 중태에 빠지자 부부인 베시가 생활비지급을 중단했었다.

모건양은 자신이 단순한 性的유희의대상을 넘어서서 블루밍데일과는 「우정·사랑·사업의 동반자」관계라고 주장했는데 블루밍데일과 모건이 워싱턴DC의 한 투자회사에 합자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짐으로써 그의 이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본부인 베시측은 블루밍데일과 모건과의 관계는 단순한 매춘계약관계 였다고 주장하면서 모건의 청구는 위자료가 아닌 花代청구에 불과하기때문에 소송의대상이 될수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블루밍데일은 레이건美대통령이 정계에 투신했을 때부터 그를 지원해왔던 캘리포니아경제인집단의 일원이며 미망인 베시도 퍼스트레이디 낸시와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사이다.

모건양은 소송을 제기한후 기자회견에서 과거 자기와블루밍데일과의 관계를 눈치채고 베시에게 귀띔해준것은바로 낸시였다고 말하고 그동안 블루밍데일로부터 얻어들은「백악관의 비밀」을 책이나 TV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은근히 위협했다.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돌아가게되자 백악관측에서도 미망인 베시에게 적당히타협을보도록 종용하고있으며 최근에는 모건양의 소송대리인인미첼손변호사를백악관으로 불러대통령정치담당특별보좌관과 面談을 나누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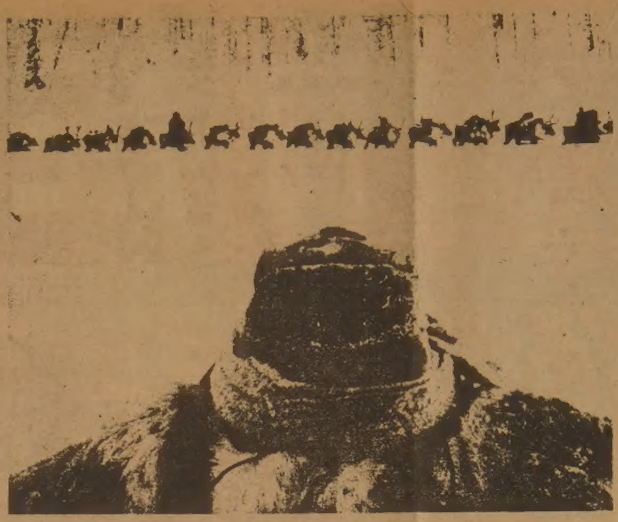
미첼손변호사는 백악관측이 조용히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사건이 마무리지어지기를 바라는 듯했다고 말했는데 그후 모건양은「근본적인 견해差이」를 이유로 미첼손변호사를 해임했다. 【朴永韶기자】

◇리즈-버튼의 熱情 한때 부부였던 엘리자베드·테일러와 리처드·버튼이 오는10월3일 NBC로 방영될 보브·호프 가장행렬쇼의 녹화현장에 12일밤나와 보브·호프가 지켜보는가운데 포옹, 열렬한 키스를 나누고있다. 【서뱅크(美캘리포니아州) 13日聯合】

世界의 社会面

蘇聯에서 온 사진들

'西方모방' '리얼리즘 獨自개척' 論難



蘇의 장막 뒤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련 아마추어사진작가들의 예술작품들이 최근 서독 바덴바덴市에서 「소련에서 온 사진들」이란 책자로 발행되어 서방세계에 소개되고있다。

사진의주제도 종래의「전원」「가족」등으로부터「누드」등으로의 새로운 변화가 엿보이는데 발행인 디터·브린처씨는 『소련의작품활동은 서방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리얼리즘을 개척해나가고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일부 독일사진작가들은 『서방 리얼리스트들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반박하고있다。다음은 이책에서 발췌한 작품들이다。

사진①은 「순록몰이꾼」 ②는 「털옷과 裸婦」。 【슈피겔誌】

엉터리골동품展·위조지폐 日本에 「가짜소동」

細金공예家 모조품으로 古代 보물展
전통의 三越백화점서 20억엔어치팔아
經營難 인쇄소선 옵세트로 10億엔 찍어

【東京23日=宋孝彬특파원】 일본은 요즘 2가지 가짜소동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그하나는 3백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미쓰꼬시(三越)백화점이 페르시아시대 보물전을 열고 엉터리 골동품을 팔다가 가짜임이 드러나 사장이 인책·사퇴하는 사태를 빚은일이고 또하나는 10억엔에 이르는 엄청난 위조지폐사건이다.

일본에서 이름있는 백화점인 미쓰꼬시가 지난8월20일 니혼바시(日本橋)에있는 본점에서 이란의 고대유물인 페르시아시대 보물전을 열어 30만명의 관람을 모으면서 20억엔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러나『아무래도 페르시아의 보물이 아닌것같다』는 많은 관람자들의 제보를 일본의 신문들이 추적, 고대사 전문가들에게 감정케한 결과, 미쓰꼬시가 전시한 87개의 전시품중 대부분이 가짜임이 판명됐다。

더우기 수사결과 이들 고대페르시아보물중 6개가 동경근처 지바(千葉)에 사는 일본인의 細金공예가에 의해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는 것이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했다。

이 페르시아 보물전에서는 기원전 6세기의 것이라는 설명문과 함께 金과 銀합성의 소머리가 앞각된 화병이 2억엔으로 정가가 붙여져있으나、사실은 20만엔짜리도 안되는 가짜인 것으로 판명됐고 裏刑飾金具도 4백50만엔의 정가가 붙었으나 단돈 10만엔짜리도 안되는 모조품이었다。

미쓰꼬시측은 이란의 미술상, 사과이氏형제로부터 첨삭 통관절차를 밟고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관절차를 밟은것은 2점으로 그것도 국내에서 모조품을 만들어 일단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들어온것이다。

3대유명백화점의 하나인 미쓰꼬시가 왜 이런 사기전시회를 열고 돈을 벌려고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쨌든 일본의 대표적 백화점이 모조품을 진짜로 속여 팔았다는데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있다。

東京시내에서 가장 매상고가 높은 미쓰꼬시백화점본점은 이가짜소동으로 신용이떨어져 매상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달에 1백50억~1백60억엔의 매상고를 올렸던 미쓰꼬시는 고객으로부터의 신용이 떨어져 9월에 들어서서 3분의1이 줄어든 1백억엔내외로 매상고가 뚝 떨어졌다。

미쓰꼬시백화점의 매상이 떨어진데 반비례해서 옆에있는 다까시마야(高島屋)등 백화점은 하루 1억엔이상의매상고가 늘어나는 기현상을보였다。

가짜 페르시아보물전에 이어 일본사상 가장 액수가많은 10억엔의 위조지폐사건이 9월7일 규우슈(九州)에서 일어나 일본사회를 또한번놀라게했다。

사건은 규우슈의 오오이따(大分)시 쓰레기폐기장에서 정교하게 인쇄된 위조지폐25뭉치가발견되면서비롯됐다。

5천엔짜리 위조지폐는 약 10억엔에 이르렀으며 너무나 정교하게 인쇄되어 어두운곳에서는 그진부를 가리기 힘든것이었다。

20일만에 경찰은 오오이따의 인쇄업자 가마다(鎌田)를 체포, 이사건은 해결됐으나 오프세트인쇄술의 고도한 발달로위조지폐를 진짜에 가깝게인쇄할수 있게됐다는사실이확인되어 일본사회에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가마다는 8년동안 인쇄술을 연마한 끝에 이같이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는데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가마다는 인쇄소의 경영난으로 위조지폐를 만들게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히고있으나 왜 완성된위조지폐를 사용하지않은채 허술하게 쓰레기장에 파묻지도않고 버렸는지는 밝혀지지않고 있다。

◇미쓰꼬시가 팔아넘기려던 가짜 골동품 [illegible]①와 黃金산牛像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미리 온 아이 ㉘

朴婉緒 作 金光培 畵 <225>

언제라도 한번 옥박해야할 불씨를 안은채 보살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굽기만 그만큼 힘겨웠다.

일환이가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조마조마도 저질러야할 것같았다.

일환이가 아기를 안고 이름 대신 우리 꽃사돈이、우리 꽃사돈이 하고 어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갈지더지고 막기만 하던 오목이가 언제부터인지 그 아이는 꽃삭동이가 아니라고 악을 쓰며 아기를 빼앗고싶은 격렬한 충동을 느끼곤 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는다해도 전사 아기까지 잃는다고 해도 그 말을 소리높이 외치는 순간의 해방감은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소생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 말을 참는다는 건 그 말에 의해 칭칭 얽어매이고、다칭네 숨 조차 크게 못쉬게 되고、조금씩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되었다.

오목이는 안집 첨년의 간섭벽이 밝자하기를 기다렸다. 보다 두려워하고、행여 도전세라 겁을 내는 그 사람 방사를 구기할 수 있기를 오목이는 잔혹한 미소를 감수고 고대했다.

그녀는 또 밤이면 일환이의 규칙적으로 고른 숨을 쉬는 넓은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엿들었다. 천연덕스러움이 싸고싼 그의 노여운 고함소리를, 피로운 몸부림을.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것을 참을 수 없게 되기를 기다렸다.

오목이의 천연덕스러움 역시 아슬아슬했기때문에 그의 속에서 일고있는 파장을 간지하는데도 민감했다. 그녀는 어떠한는 그가 먼저 부순 일을 저질러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피해자로서의 준비일뿐 가해자이긴 싫었다。그게 바로 오목이가 일환이보다 강한 점이기도했고 간교한 점이기도 했다.

모든 여자가 다 그렇듯이 그녀 역시 삶과 행복을 이룩한 보람만 간직하고 싶었다。그것을 파괴한 책임은 지고싶지가 않았다.

엄마 아빠의 이런 힘겨운 줄다리기에서도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백일을 맞았다.

일환이는 백날잔치를 크게 하자고 며칠부터 별렀었다.

『당신 면사포한번 못씌워본 처도 크긴 하지만, 사실 님이랑 가게 식구들 한테 어른 되고나서도 국수 한그릇 대접 못한 빚이 늘 걸려왔었는데 이번기회에 백날겸 그 빚 먼저 갚도록합시다.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됐잖소』

오목이 역시 이의가 있을 까닭이 없었다.

아기 낳자마자 젖은 그 무서운 고초와 고혼을 넘기고 나서의 나날의 행복은、아기 낳고나서 생긴 많은 일때문에 아기낳고 아직 백날에 안됐다는게 이상할 지경이었다. 아기역시 백일아기라곤 믿을수 없을만큼 숙성하고 탐스러웠다. 보는 사람마다 안아주고 싶어했고 이뻐숨에는 비단비단 웃는얼굴이 보고싶다고 입부터 자는아기를 깨우려오는 주착스러운여편네도 있었다.

일환이의 가게 친구 하나게 상주네 이웃들도 좋은사람들이었다. 마음 놓고 가난한 이웃들이 아직 이렇도 없는 아기의 백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오목이는 생전처음 금반지를 낄여서 떡도 니니하게 하고 미역국도 큰 솥으로 한솥 끓였다. 사진사까지 오실 생각으로 예쁜 그릇도 사고 벌고기도 재어 놓았다. 안집에서 호마이카 교자상도 빌었고, 동네손님을 위해서 안집 안방도 빌었다.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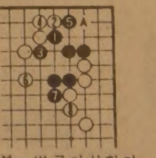
第3局 第4譜 60~80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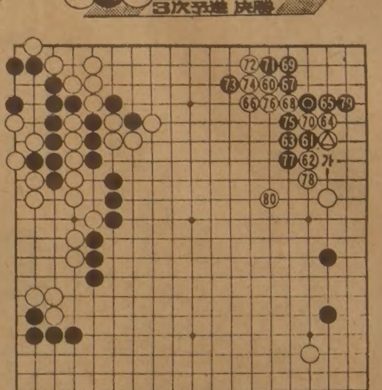
黑(4段) 李 ○ ○

우상귀 黑표 화점에 대해 白60으로 양걸침하는 수는 자주 나타난다. 이때 黑61, 63은 상대의 강한 쪽에 붙여 뻗는 수로서 당연하고 이하 黑67까지 되면 白은 참고도처럼 白2로 이단젖힘하는 것이 무난한 길이다. 그리고 黑이 이 방면에서는 정석대로 白8까지 처리하면 삼연 白세도 부분적 오르고 또 잡차 白A에 붙이는 재미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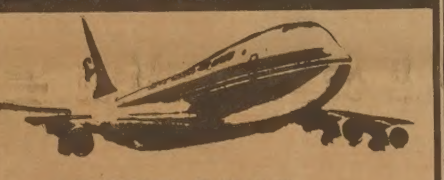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白은 60부터 호조가 시작된 만큼 참고도의 평범한 과정을 밟아도 더할 나위가 없었던 것이다. 실전은 白68로 굳이 변화를 꾀한탓에 이하 黑79까지 되고보니 상변에 ... 인데 과연 뜻과같이 될것인지 기다려보기로 한다. 【一凡】



白、작전실패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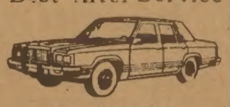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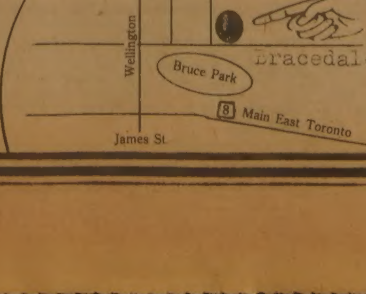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가 오는10월 초순께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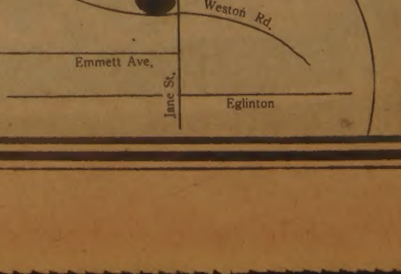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 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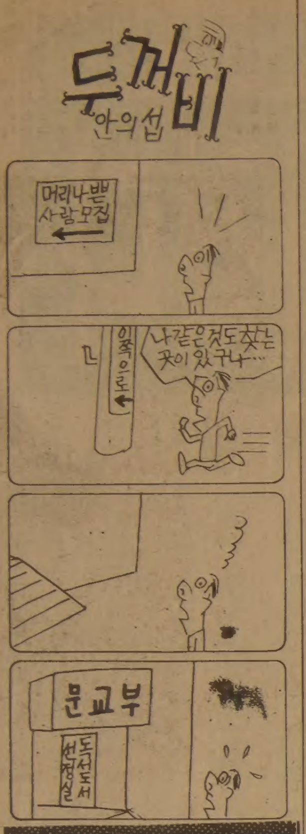
박인조 올림



해밀톤·서울식품
128 BRA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 : 243－9544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警察官이 총질… 친구 숨져

正服차림 요정서 滿醉 "接待婦에 여관가자" 春川서

【春川=鄭柬鎬기자】23일하오10시30분께 강원春川市三川洞213 산수장 요정에서 술을마시던 金世鍾씨(35·등산복포매표소 관리인·春川市後坪洞480의3)가 春川경찰서교통계소속 李우영경장이 쏜 권총에맞아숨졌다。

金世鍾씨는 이날하오 李경장등 평소 알고지내던 경찰관 3명과친구1명등모두5명이 산수장요정에서 접대부 4명과함께 맥주20병을 마셨는데 李경장이 옆자리에 앉았던 접대부에게 「여관으로 가자」면서 권총을 휘두르다 발사돼 金씨의 왼쪽팔과 심장을 관통,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조사에나선 경찰은 술에취해 오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경장등은 이날 모두 정복을입고 술을 마셨는데 다른곳에서 술을마신뒤 2차로 이곳에와 맥주를 더 마셨다는것。

수사에나선 春川지검은 24일하오 金씨의 시체를 부검, 오발여부를 조사중이다。

體操연습 女大生 2층서 추락重傷

【光州】24일낮12시15분께 光州市北區瑞石洞 朝鮮大본관 좌측2층에서 이학교 응용미술과1년 安○○양(18)이 체조연습중 창문틈으로 떨어져 머리에 중상을입고 조대의대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이다。

이날 安양은 점심을먹은뒤 친구 5명과함께 오는 29일 개교식 축전에 나가기위해체조연습을 하다가 창문에 부딪쳐 밑으로 떨어져 채광을위해 시설해놓은 플래스틱지붕을뚫고 시멘트바닥에 떨어진것。【韓】

韓昇熙씨 豫備심리 渡美 애정행각事件

【덴버UPI=聯合】미스서울 俞政양 납치혐의를 받고있는 韓昇熙씨에 대한 예비심리가 오는 10월1일 열릴것이라고 美연방관리들이 밝혔다。 납치및 위조여권소지혐의로 韓씨를 제소한 美사직당국에 의하면 예비심리 일은 원래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주일 연기된것이다。

女敎師납치 감금 財團이사등 立件

【三千浦】속보=경남 三千浦경찰서는 24일 교사임명에 불만을 품고 여교사를 불법감금한 사천여중 재단이사 정동섭씨(48·泗川邑 洙石洞194의4)와 하수인 하갑협(27·泗川邑 洙石洞287의7) 최용묵(25) 조종영(47) 박만섭씨(25)등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珊瑚등 밀수 中國人 구속

서울 江西경찰서는 24일 중국인 尙王啓蘭씨(41·臺灣省桃園縣)와 蔣秀聰씨(28·″)등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3일 상오10시20분께 대한항공616편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산 산호 1천개와 전자손목시계 1백40개등 모두 1천7백여만원어치를 과자상자속과 가방밑창에 숨겨갖고 들어오다 적발됐다。【韓】

밭떼기去來값 올라 羅州등 채소主産地

【錦城】전남羅州·光山등 채소주산지에서는 최근 채소흉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밭떼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값도 크게 오르고있다。

24일 농민들에 따르면 올해는채소흉작이 예상되자 서울·釜山등 대도시상인들이몰려들어 밭떼기로 사고 있으며 값도 크게 뛰어 지난18일까지만해도 무우 1백평당 8~10만하던것이 23일현재 1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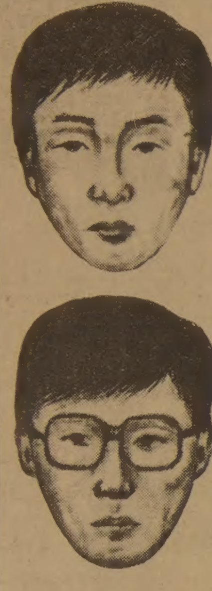
농민 任秉赫(38·羅州郡金川面洞岳里)는 「지난중순께 무우밭을 1백평당 8~10만원에 팔았는데 요즘은 15만원선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韓】

무우·배추共同出荷 농협서 선도금配定

【水原】농협京畿도지회는 24일 김장용무우·배추의 가격안정과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여주기위해 오는11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무우1만2천8백톤과 배추3만1천톤등 모두 4만3천8백톤을 공동출하키로하고 출하선도금 4억1천3백만원을 관하시군지부에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출하선도금의 지원대상 농가는 주산단지 영농회장이 추천하는 농가와 단위조합에서 오는10월10일까지 생산계획량의 50%까지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무우는 톤당 2만4천원, 배추는 톤당 1만6천5백60원씩 지원하게 된다。【韓】

◇총기탈취범 몽타지



숫법 같은者 金모씨 手配

M16탈취事件 얼굴닮은 6명도 追跡

仁川 M16총기탈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4일 같은 숫법의 전과자명부에서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金浦공항주변의 전과자 金모씨(25)를 유력한 용의자로보고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이 金씨를 용의자로보는것은 金씨가 지난해 10월 모의권총으로 일본인을 상대로 강도를 하려다 사전에 발각돼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고 이번 M16총기 탈취범의 체격과 얼굴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총기를 빼앗긴 朴상병이 소속된 부대에서 금년에 제대한 14명중 소재가 불명하고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金모씨(23·경기城南市) 申모씨(24·전남光州市) 南모씨(24·서울城東區龍踏洞)등 6명에 대한 행적수사도 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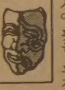
한편 경찰은 전날 채취한 25개의 지문가운데 범인의것으로보이는 지문4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분석의뢰했다。 그러나 이지문 모두가 손가락 옆부분이 찍혀있지않아 범인의 신원을 추적하는데는 별도움이 되지못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체포에결정적인단서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현상금1백만원을 주기로했다。

17顚18起

司試 최고령合格 孫性大씨

기나긴 落榜여정…48세의 榮光



24일 발표한 사법시험합격자중에는 48세의 孫性大씨(사진·釜山市東區凡一6洞산61)가 끼어있다。孫씨는 司法사상 최고령 합격자로서 시련과 각고를 이기고 17전18기의 끈질긴 인간승리를 이룩했다。

孫씨가 司試에 처음도전한것은 지난67년 제7회 사법고시때부터。이후 계속된 낙방의 쓰라림을 스스로 달래며 오직 합격의 집념으로 외길 인생을 살아 뒤늦은 합격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孫씨가 사법고시에 뜻을 두게된 것은 지난61년。

대학을 졸업한후 釜山시청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후 66년까지 공보계서기로 근무했으나 진급의 기회나 목적을 두고 공직에 봉사할수 있는 전망이 없어 고시에의 꿈을 갖게됐다。

그러나 쉬운일이 아니었다。 쥐꼬리만한 박봉에 생활마저 급급한 여건에서 고시공부란 마음만 가지고 되는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뜻을안 부인 安병선씨(45)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釜山鎭시장에 조그마한 포목가게를 내 남편의 고시 뒷바라지에 나섰다。

66년5월 공직을 사퇴하고 서울 고시학원에서 시험준비를 시작、67년 제7회 사법고시에 응시했으나 1차 시험부터 낙방、孫씨의 기나긴 「고시여정」이 시작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력이 떨어지는등 건강상태가 날로 악화돼 몇번이나 좌절감을 갖고 포기하려고도 했다。 그때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한다』는 부인 安씨의 격려와 눈물겨운 뒷바라지로 용기를 잃지않았다。

孫씨가 18번째의 고시도전에서 제일 어려웠던것은 1차시험에서의 영어과목 과락이었다。

1차 시험만 11번이나 떨어지는 불운을 맞아야했던 그는 시험준비의 상당시간을 영어에 매달려야했고 이때문에 더욱 큰 고통을 감수해야했다。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온 것같습니다。아내에겐 면목이 선것같고 아이들(2남2녀)에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는것으로 보람을 찾겠습니다。앞으로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편에 서렵니다』【釜山=聯】

感恩寺 新羅鐘 끝내 못찾아

해저探査班 철수

【慶州】속보=경북月城郡陽北面奉吉里 앞바다에서 感恩寺의 新羅동종을찾기위해 수중탐사작업을 벌여온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해저탐사조사단은 끝내 종을 발견하지못한채 23일하오 탐사작업을끝내고 철수했다。

商標도 外製라면…

국제競爭力·기술向上은 구실뿐

◇최근들어 소비재상품에도 외국상표가범람, 국민들의 소비성향을 조장하고있다。

國籍불명 新造語 범람에 현혹

아이스크림·신발·치약·도너츠까지

TV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어지럽다。화장품류, 의류, 구두류, 과자류, 아이스크림류등 각종상품의 이름이 온통 외국어천지다。세계 어느나라치고 「외국어상품명」이 「國語상품명」을 이토록 압도하는나라가 있을까。외국의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상표사용이 불가피한지모르나 순수국산인데도 정체불명의 외국상표를 내거는이유를 이해하기가힘들다。

시민들은 외국의 기술을도입한것은 국내생산업자의 기술향상에 자극을주어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데 있는것을 이해하지 못한것은 아니나 소비재상품의 폭발적인기술도입이 장삿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고우려를 표시했고 한국어도아니고 외국어도아닌 국적불명의 이상한 상품명에 대해서는노골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내고있다。

24일 업계에 의하면 의류의경우 외국상표는 지난79년부터 도입이 허용되기시작、10여개업체에 22종이 인가됐는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것은10여종。

도입선은 미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등으로 어떤상표는 2개이상의 국내업체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중인것도있다。

국내굴지의 S백화점은 3년간 매년 총매출액의 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의 「피에르가르댕」상표를 도입했는데 여성의류 전문회사인 N사에서도 이 상표를 도입하기로했다。

또K제화에서도 5년간 18만달러를 지급하기로하고 피에르가르댕상표를 쓰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신발류에도 이미 4종의 외국상표가 도입됐는데 E제화가 프랑스의 「샤를르쥬르당」을, 또다른 E제화가 미쓰비시회사와 손을잡고있으며 K회사는 피에르가르댕의 디자인과 색상등 기술을 도입, 상표사용을 허용받았다。

또 H사가 미국의 운동화인 「나이키」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판매하고있는데 가격은 기존 국내제품의 2배가까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식품류에도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상품들이 늘어났는데 어떤상품들은 『정말 이같은 품목에도 외국기술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상품도많다。

K사는 미국으로부터 아이스크림제조기계와 맛을 내는 향료를 전량도입한다는 조건으로 C상표의 아이스크림32종을 생산하고있는데 맛을본 사람들중에는 『값만 비쌌지 우리입맛에는 안맞는것도 많다』고 평했다。

이 밖에 요즘 경쟁이 치열해진 치약시장에서도 경쟁적으로 외국기술을 도입、외국상표들을 내세우고있으며 심지어는 국제대회에서 최우수품으로 상까지받았다는 맥주회사들도 외국기술이나 외국상표를 버젓이 자랑하고 있다。

B회사에서는 순미국식 도너츠를 국내시장에 선보일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서울의 중심가인 鍾路2街에는 또다른 회사가 미국식도너츠맛을 보여주기 위해 요란한 간판을 내걸었다。

지난6월부터 서울의 29개 점포망을 통해 팔리고 있는 K회사의 C아이스크림은 선전초기부터 「순미식아이스크림」임을 강조했는데 이회사의 선전을 본 한 여대생은 『마치 국산아이스크림이 형편없다는투여서 모욕적인 느낌까지받았다』고 말하고 『아이스크림에까지 선진기술이 도입돼야하는가』고 반문했다。

또 일본의 선진기술로만들었다는 즉석빵이 일본회사와 50대50의 비율로 합작생산돼 시중의 동일 품목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소비자들의 외국상표선호경향에 편승, 일부 업체에서는 외국상표를 도입한후 자사가 개발한 상품에도 발음하기어려운 외국어이름을 붙여 판매하고있는데 마치 외국의 기술을도입한 제품인것처럼 광고효과를 노리기도한다。

S사의 남성의류가 대표적인 예로 이회사에서는 외국에서 S상표를 도입한후 자사가 개발한 모든 남성복에 외국어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로하여금 정당한 절차로도입된 외국상표인것으로 현혹케하고있다。

또 화장품류는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 분간키어려운 상품명이 허다하다。

외국상표나 외국기술도입은 원래 국내생산품의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내수시장에 자극을 주기위해서라는 것이 업계의정설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상표의 홍수나외국상품명모방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품은 언제개발되고 수출할수있는 것인지 걱정이앞선다는게 시민들의지적이다。【徐華淑기자】

안방서 爆發物터져 男妹등 6명이 死傷

仁川서…종류 미상

【仁川=崔成基기자】23일하오9시50분께 仁川市南區朱安7洞1333 朴雙萬씨(35·경기여객정비사)집에 세든 金기남씨(24·목공)의 방에서 종류를알수없는 폭발물이터져 방안에있던 金씨의 장녀 영주양(2)과 장남 호민군(1) 金씨의 친구 鄭石씨(24)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金씨의 부인 朴두연씨(23)와 金씨의 다른친구 2명등 3명이 파편을맞고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를일으킨 폭발물은 金씨가 지난80년9월부터 81년5월20일까지 모부대 방위병으로 근무하다 제대할때 가지고 나온것으로 숨진金씨의 장남이갖고놀다가 방바닥에 떨어뜨려 폭발한것이다。

26일 金씨의 친구 鄭씨등은 오는 金씨의 결혼식을 의논하기위해 모여 金씨가오기를 기다리던중 변을 당했다。

모기香피우고 자다中毒

일가족5명 死傷 참변

【木浦】모기향을 피어놓고 방에서 잠자던 일가족5명이 중독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3명은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

24일 상오6시께 全南木浦市山亭洞三鶴島1330 梁恩實여인(25)집 작은 방에 세들어살던 秋炳元씨(30)와 부인 朴美大子여인(26) 큰딸 蓮喜양(5) 큰아들 成賢군(3) 처조카 朴元均군(6)등 5명이 모기향에 중독돼 있는것을 집주인 梁여인이 발견 木浦시내 성코롬방병원으로 옮겼으나 어린이 3명은 이날상오9시께 모두 숨지고 朴여인은 중태에 빠져있으며 秋씨는 이날하오3시현재 의식을 회복해가고있다。

秋씨에 따르면 이들은23일밤9시께 S제약제품인 모기향2개를 피워놓고 잠을잤다고 말했다。【韓】

3輪오토바이 輪禍 20代행상靑年 구속

서울麻浦경찰서는 23일 金平昌賢씨(21·행상·서울恩平區鷹岩洞284의6)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어릴때 소아마비를 앓아 양다리를못쓰는 金씨는 22일상오9시30분께 서울麻浦區新水洞9 앞길에서 90cc오토바이를 개조한 세발오토바이를 몰고가다 朴수才씨(46·여·보험외무사원·서울麻浦區新水洞91의64)를치어 중상을 입혔다。

오토바이를 몰고다니며 잡화행상을해 예순이넘은 노부모를 부양해온 金씨는 이날 중부시장에 물건을 사러가던 길에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金씨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내려했으나 제도적으로 길이 막혀있어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빅·세븐 선물센터
코트 대매출
LONDON FOG
○울트라스웨드 남자용 여자용
특별할인봉사
● 진풍 웅담 ● 녹용(인삼 제품)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테프와
비데오테프 다량입하!!
랜빅 넥타이, 지방지 Y셔츠
귀국 선물 용품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내고향 통닭집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새로 단장한 통닭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날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메 뉴

오뎅·백반	$3.75	빈대떡 4개	$2.—
우동	$3.—	짜장면, 곰탕	$3.75
냉면	$4.—	갈비백반	$5.75
통만두	$3.—	생선찌개백반	$4.75
김밥	$2.95	통닭	$5.95
칼국수	$3.75	½닭	$3.75
곰탕	$3.75	불고기백반	$5.95
비빔밥	$4.00	생선초밥	$4.50

지역에 따라 배달 가능합니다.

658½ BLOOR ST. W. ☎ : 537-0432 주인백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전문
통만두

658½ BLOOR ST. W.
☎ : 537-0432

한국팀끼리 爭覇

加오픈탁구 禮一女高A·B 日팀 격파

【터론토23日AP聯合=特約】캐나다 오픈탁구대회에 참가한 禮一女高 A、B팀이 모두日本을 3-1로 격파、결승전서 한국팀끼리 승부를 벌이게됐다。

24일 터론토에서 벌어진 캐나다 오픈 준결승전서 金淑 李桂仙이 활약한 한국A는 日本B(다까오·다까끼、루미·고하라)를 3-1로 이겼으며、金美姃、申賢淑의 B는 日本A(히도미·후꾸다、도미꼬·미야끼)에 3-1로 승리했다。

아마 골프 大會 郭宥鉉우승차지

제29회 한국 아마·골프선수권 대회는 郭宥鉉이 토를 2백98타로 우승을 차지한가운데 24일 安養컨트리서 폐막되었다。 최종일 라운드서 郭宥鉉은 74타를 기록、同打5위인 李憲과 김석종을 누르고 역전 우승했다。

◇최종일 기록
①곽유현=298(75-75-74-74) ②이헌=299(80-73-70-76) ②김석종=299(74-72-77-76) ④조범수=300(75-75-76-74)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가을하늘에 메아리친 독수리 호랑이 喊聲

농구·럭비 延大 축구 高大가 이겼다

永遠한 맞수 화려한 應援戰속에 「友情의 잔치」

◇결승 총알킥

延高축구대결。열띤 응원속에서 열전을 펼치고있다。후반 막판에 高大의 李泰昊가 프리킥을 그대로 골인시켜 高大가 1-0으로 승리。

축구 李泰昊 銃알같은 프리킥성공 1-0

농구 6초전 兪載學 千金의 역전슛 81-80

럭비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大接戰 21-16

82 延高戰 >제1일<

대학스포츠의 양대 라이벌인 延世大와 高麗大간의 금년도 정기전이 24일 개막、첫날 벌어진 축구·농구·럭비·풋볼등 3종목 경기서 延大가 농구와 럭비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우세를 보였다。 25일 최종일에는 야구(12시·잠실야구장)와 아이스하키(2시·동대문링크) 경기가 열린다。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축구대결에서 高大는 후반36분 국가대표선수인 李泰昊가 프리킥을 그대로 득점에 연결、승리를 거두었다。

延大는 잠실체육관서 열린 농구경기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경기종료6초전 兪載學이 高大골밑을 파고들어 레이업슛을 성공시켜 81-80、반골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럭비풋볼 경기서도 延大가 21-16으로 이겼다。

[축구] 高麗大가 1-0으로 힘겹게 승리했다。 후반36분께 高大FW 金錫垣이 미드필드 왼쪽에서 중앙으로 볼을몰고 가는순간 延大HB 玄基昊가 손으로 붙잡아 페널티 에리어 외곽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高大의 HB 李泰昊는 볼에 회전을 걸어 프리킥、볼은 총알같이 날아 延大골문 오른쪽 모서리에 꽂혔다。 결승점이었다。

李康助、李泰昊、鄭鍾洙、黃石根등 국가대표선수와 朴良夏、金錫垣、咸鉉起등 청소년대표로 구성된 高大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국가대표선수인 延大GK 鄭聖敎의 선방과 수비진의 타이트마크에 막혀 전반전서 선제골을 올리지 못했다。 高大는 슈팅수에서 전반 8-1、후반7-3으로 우세했다。

[농구] 믿어지지않는상황의 연속이었다。 경기종료1분여를 남기고 79-76、延大의리드。 승부를 예측할수없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高大는 1분1초를 남기고 延大 高明和의 파울로얻은 프리드로를 李珉鉉이 모두 성공시켜 79-78、1점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공격에나선 延大는 吳世雄이 무리하게 高大골밑으로 파고들어 슛을시도하다가 金允皓의 블로킹에 걸려 볼이 밖으로 튀어나가 점프 볼이 되었다。

高大는 점프볼을 잽싸게 李載浩에 연결시켜 李가단독드리블、슛을 성공시켜 80-79 기적적인 역전리드를잡았다。 공격을서두른 延大는 무리한슛을 날려 金允皓에게 리바운드를 빼앗기고 金賢俊이 파울을범해 高大의승리가 굳어지는것 같았다。 남은 시간 23초。 그러나 高大는 프리드로를 하지않고 하프라인서 아웃·오브·바운드로 지연작전을 벌인것이 큰실책이었다。

高大공격진은 하프라인을 서둘러 넘어가려다가 바이오레이션을 범해 16초를 남기고 공격권은 延大로 넘어갔다。 이긴박한 상황에서 延大 1년생 가드 兪載學이 단독드리블로 高大골밑에 접근、6초를 남기고 결정타를날려 81-80、延大승리에 수훈을 세웠다。

전반을 41-37로 리드한 延大는 金賢俊、高明和의 슛이 작열、후반 한때 16점차를 벌여 안전권에 들어섰다。 그러나 高大는 金允皓의 리바운드와 金鎭、李載浩의 슛으로 맹추격、3점차까지 쫓아올라갔다。

경기종료 1분1초를 남기고 高明和의 5반칙퇴장을 놓고 본부석과 벤치와의 기록이 엇갈려 50분가량 경기가 중단되었다。

[럭비] 치열한 접전끝에 延大가 위력있는 오픈플레이로 21-16으로 승리했다。 전반 7분께 延大는 하프라인 20m지점에서 반칙을범해 高大에 페널티킥을허용、0-3으로 리드당했다。

延大는 13분께 기민한 오픈플레이를 전개、LW 趙容德이 우측을 파고들며 CH 金承煥에게 연결했으며 金이 트라이에성공、4-3으로 역전리드를 잡았다。

반격에나선 高大는 17분께 RW高在旭이 중앙을 치고들어가 오른쪽코너에 트라이를 성공시켜 7-4로 다시 게임을 뒤집었으나 전반종료 1분전 延大RW 鄭根永이 오른쪽 라인을타고 몸을 던지며 트라이、延大는 전반을 8-7로 앞섰다。

延大는 후반 7분에 SH 文仁泰가 트라이에 성공하고 金承煥이 골킥을 추가、6득점했으며 高大는 14분과 19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14-13까지 따라붙었다。 이어 페널티킥을 주고받아 17-16 접전을전개했으나 경기종료3분을 남기고 延大 FB 孫興萬이 高大오른쪽코너에 트라이、21-16으로 延大 승리를 결정지었다。

◇첫날전적

◆축구	高大 1	(1-0, 0-0)	0	延大
◆농구	延大 81	(40-43, 41-37)	80	高大
◆럭비풋볼	延大 21	(13-9, 8-7)	16	高大

日배구協 한국에 응어리 품고 있었다

韓·日배구 79년부터 「불편한 關係」

우리가 이길때마다 꼭判定시비 "7명이뛴다"며 한국審判 헐뜯어

◇「假面게임」 게임조작으로 말썽을빚은 日本-페루경기。 페루가 15-4、7-15、15-15、15-10으로 이겼다。【리마=聯合】

日本여자대표팀의 고지마(小島)감독을 포함한 日本배구협회관계자들은 한국에 대해 응어리를 품고있었다。

페루세계선수권대회서 日本이 페루에 고의로 패하고 한국을 4강에서 탈락시킨것은 그들의 비뚤어진우월감、옹졸함에서 비롯됐지만 79년이후 韓日양국의 배구교류면을 살펴볼때 최근양국간의 감정은 상당히 날카로와 있었고、이런「불편한관계」가 日本의 게임조작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79년서울에서 처음 열린 韓日 정기전 1차전서 한국은 고지마가이끈 日本에 3-1로 패했는데 경기직후 고지마는 한국 주심의 관정에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한국은 수준향상을위한 노력보다는 심판을 움직여 게임을 이기는데에만 급급하다』고 모욕적인 발언을했다。 2차전서 한국은 풀세트 접전끝에 3-2로 승리했다。

2차전 주심을 日本의 후지무라·마사미씨가、부심은 李昌浩씨가 맡아 심판판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는데도 고지마감독은 2차전 패배의 분을 참지못하고 『한국배구는 7명(심판의힘을 지칭)으로 싸우는한 발전할수 없다』고 강변했다。

지난 5월 日本에서 벌어진 NHK컵배구대회 韓日전 때 한국인 C씨가 주심을 맡았는데 日本배구협회는 C씨가 日本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발끈、『오래전부터 日美·日蘇·日쿠바 정기전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해오던 한국이 지금에 와서 판정농간을 부린다』며 심판 징계를 아시아연맹(AVBF)에 요구하자고 들고나오기도 했다。

한국과 日本이 심판판정을 둘러싸고가장날카롭게대립한 것은 지난5월25、26、27일 서울과 原州에서 벌어진 82년 韓日정기전때였다。 1차전서 3-0으로 완패했던 한국은 2차전서 한국주심의 관정에 힘입어 3-2로 승리했으며 3차전서는 日本주심의 엉터리판정에 편승하여 日本이 3-2로 이겼다。 韓日정기전은 양국선수들의 정당한실력대결이라기보다는·한마디로 韓日심판들의 싸움같았다。 고지마를 비롯한 日本측임원들은 『다시는 韓日전을 하지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귀국했다。

양측의 분위기가 시한폭탄과같은 상황이었으므로 日本이 한국을 골탕먹이겠다고작심했을것이라는게 국내 배구인들의 관측이다。

심판의 힘을 빌어서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는 것과 다를바없다。 엄격한 시험감독관앞에서는 부정한방법은 통하지 않으며 좋은 성적도 낼수없다。

오늘의 이싯점에서 日本여자배구의 전력은 한국보다 강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배구인들이 합심단결한다면 日本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金仁奎기자】

프로야구 白仁天·金奉淵홈런더비 1위

OB베어스는 23일 大田에서벌어진 해태 타이거즈와의 경기서 5-4로 신승、26승 10패를 거두고 프로야구후기리그선두로 나섰다。

한편 MBC청룡도 이날잠실운동장에서 9회말 金龍雲의 내야안타로 결승1점을올려 롯데에 3-2로 승리했으며 MBC의 4번타자 白仁天은 2회초 솔로홈런을날려 해태의 金奉淵과 함께 홈런더비에서 18개로 공동1위에 올랐다。

◆잠실운

MBC	0	1	0	0	0	1	0	0	1	3
롯데	0	0	0	0	0	0	2	0	0	2

▲홈런=白仁天(2회·MBC)

◆대전

해태	0	1	0	1	0	0	2	0	0	4
OB	2	0	0	0	1	1	0	1	×	5

가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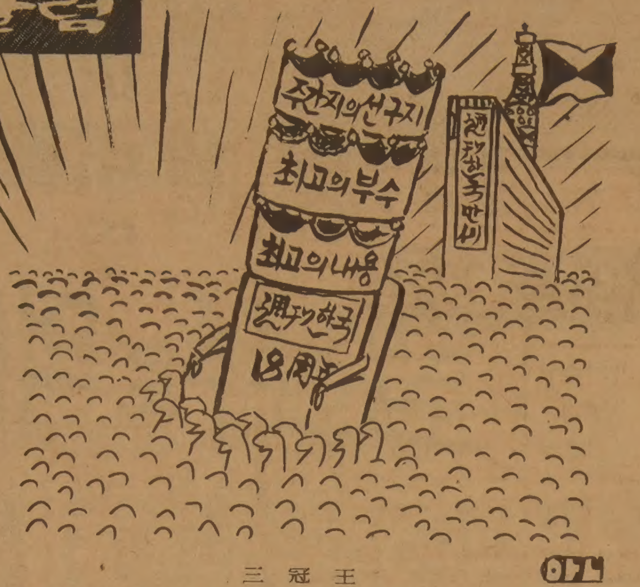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 (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변 의 섭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사진만 같으면 됩니다…



三冠王

본지 創刊 18주년 특집 "이것이 人生이다"

52년을 한자리서 「白飯」 장사한 許할머니

서울 最古風의 음식점「馬場屋」의 전통

초가에서 시작하여 기와집으로 고쳐지은후 37년동안 고풍스런 옛맛(예맛이라기보다 초췌하고 스산한)을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줄곧 반백년동안 백반을 해파는 간판 없는 밥집이 있다. 이웃간이나 단골손님들 사이에 그냥「마장동 할머니집」이라고만 통칭돼 오는 이 전통 깊은 밥집은 간판이 없어 혹 무허가업소가 아닌가 싶지만 세금 낼 때만은 어엿하게 쓰이는 이름이「馬場屋」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있으되 쓰지 않는, 간판을 달지 않는 특이한 업소라고나 할까.

◇마당안에 자리잡은「목로」는 단골손님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불편한 몸이면서도 누워있기는 커녕, 마루에 앉아 모든것을 참견하는 許陰田할머니.

1930년 42세때 開業…외길人生

하여간 이 명동 할머니집의 정확한 주소는 서울성동구마장동514번지이고 주인이자 장본인은 올해로 94세라는 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許陰田할머니다.

許할머니가 태어난 곳도 바로 이 마장동이다. 16세때 河씨(2세 연하의 남편은 35년전 작고) 집안으로 시집온 許할머니는 32세되던 해부터 지금의 집자리에서 담배소매소를 겸한 잡화상점을 차렸다가『장사를 할바에는 이문이 많은 밥장사가 좋을것 같아』10년 뒤의 42세때인 1930년 봄부터 음식점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장 반세기 동안 한곳에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한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할만하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서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메뉴가 오직 한가지 뿐이라는 점이다. 손님에게 뭘 먹겠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으레 이 집을 찾는 사람은 백반을 먹으러 온 사람으로 보고 백반만 먹겠느냐, 아니면 고기를 먹겠느냐고 물을 뿐이다. 백반을 시켜놓고 갈비를 한두대 곁들여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이 할머니집은 ㄷ자형 한식 기와집인데 대문이 행랑채에 달려있어서 대문을 열면서부터 방과 마당이 모두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인 정오께부터 2시 사이에는 방6개와 대청, 그리고 마당에 만들어 놓은 목로 1개가 손님들로 꽉 찼는데 이 집을 찾는 고객들이란 대부분이 단골들로 20~30년 동안을 드나들고 있었다. 흰쌀에 팥이나 콩을 약간 섞은 반지기 밥에 반찬은 대충 7~8가지. 김, 김치, 도라지무침, 파무침, 고추조림, 콩나물, 무우장아찌등이었는데 좀 특별하다고 느낀 것은 쇠고기국이었다. 양지머리를 5~6시간 푹 고아낸 뿌연 국물에 몇덩이의 살코기를 넣어주는 이 무우국은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만큼 진했다. 보(褓)가 내려앉은 꿈을 꾼뒤로 계속 몸이 불편해서 벌써 7개월째나 부엌 출입을 못한다는 許할머니였지만 찾아오는 단골들의 얼굴이 보고싶은 노파심에서인지 건넌방 툇마루위에 초석자리를 깔고 앉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집안을 호령하고 있었다.

부엌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모두 4명의 부인네였는데, 그중 70세나 된 며느리와 30대의 손자 며느리는 許할머니의 호령이 떨어질세라 눈치를 슬금슬금 봐가면서 손님들을 접대했다.

許할머니는 기억력이 좋은 탓인지, 들고 나는 손님들중 단골들과는 계속 인사말을 주고 받을뿐 아니라『안방에 두분상』『들아랫방에 다섯분상』이라고 큰 소리로 부엌을 향해 주문까지 할만큼 許할머니의 근력은 대단했다.

70세라는 며느리는『우리 시어머님이 김치 담그는것에서부터 관계 안하시는게 없다』고 말하면서『나도 늙은이지만 노인일수없는 노인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세운상가에서 설계서무소를 차리고있다는 尹榮漢씨(37)는 서울2다3728호 승용차를 타고 친구5명과 함께 와서 백반에 불고기를 구워놓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반찬이 정갈해서…』1개월에 2~3회는 꼭꼭 찾고있는데 어언 4년동안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70세의 며느리와 30代 손자 며느리가 調理
변함없는 고유한 맛에 20~30년 단골수두룩

또 들아랫방에서 식사를 한 할머니집에서 20분거리에 있는 계우산업사 사장 李在烈씨(33)도 강서구 방화동에 살고있는 친구(金泳吉씨)가 찾아왔길래『우리 할머니의 음식맛과 똑같은 집에 가자』며 이곳으로 끌고 왔다면서 1주일에 한번이상은 꼭꼭 오는데 어릴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차려주던 그런 소박하고 담박한 밥상 같은 맛을 느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까 할머니집은 무특징이 특징으로 꼽히는 집이다. 평범함이 돋보이게 된것인데 이것은 許할머니가 반세기동안 한 우물을 팠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한결같이 장소도 옮기지 않았고 메뉴도 바꾸지 않았으니까 같은 맛을 원하는 단골들을 계속 묶어놓수 있었을것이다. 만일 장소는 바꾸지 않았다해도 영업종목을 바꿨다든가 기둥과 서까래가 새까만 숯검정으로 찌든 옛집이 불썽사납다고 뜯어내기라도 했다면, 사라져가는 전통의 맛을 찾으려는 많은 단골손님들을 잃고 말았을게 분명하다.

朴吉洙씨(62·성동구행당동636)는 30년이 넘게 할머니집을 다니고 있다면서『이제는 이집 음식이 입에 배어서인지 다른 식당에 가서는 밥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머니집 식구같은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집이 52년동안을 꾸준하게 백반 한가지 음식을 하면서 지내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단골들과 헤어질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 다른 음식도 하지 백반 한가지만 계속 했느냐는 질문에 할머니의 대답은 소박하고 담백했다.

『나는 다른음식은 만들줄 몰라.』

다른 음식은 만들줄 모르는데 어떻게 메뉴를 늘리느냐. 자신없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파느냐, 할머니의 대답은 바로 정직한 고백이었다.

9월3일자 한국일보 3면「메아리」란에는 金聖佑편집위원이 쓴「할머니 집」이란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그 글에서 金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식당으로 올해로 꼭4백주년(1582년개점)을 맞는다는「투르·다르장」이라는 파리의 레스토랑을 소개하면서 이 許할머니집「馬場屋」의 전통을 우리나라 서울의 가장 오래된 음식점으로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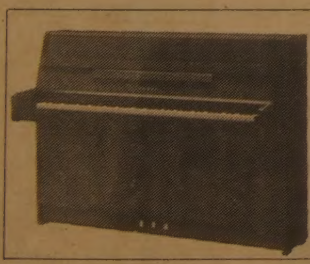
사실상 이 許할머니의「백반집」이 가장 오래된 것이든 아니든 그걸 꼭 따질 필요보다 許할머니가 병중에 있으면서도 마루에 앉아 손님들에 대한 음식시중을 살피고 단골들을 맞고 있는 그 섬세하고 배려 깊은 자세가 우리에게 뭔가를 일러주는것 같다.

金위원이 회고했듯 4백년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무렵에 왜군을 소탕하는 싸움에 나섰던 군사들이 밥을 대먹던「식당」이 지금까지 서울장안에 문을 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고 면면한 전통에 어깨를 으쓱댈 일일까.

할머니 집을 떠나면서 문득 생각되는 것은 슬하의 3남2녀 자손아래에 생장하는 후손들이 무려 1백명에 가깝다고 하는데 헤여 그중의 한사람이라도 이런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통을 멋으로 자랑삼아 그 터전을 변함없이 지켜줬으면 어떨까하는 것이었다. 〈升〉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 (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 (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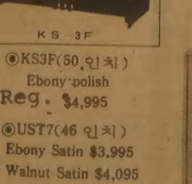
DX300 $3,495-REG

DX80 〈Reg〉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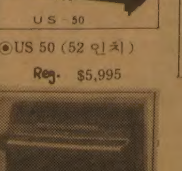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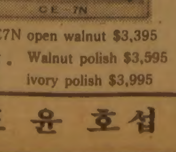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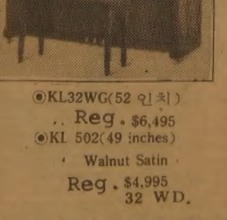
◉KS3F(50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40세 중년 부인을 정형수술하던 鄭進의원 원장 鄭在泰씨가 의료사고로 구속되고, 釜山의료원에선 시체가 바뀌어 소동이 났었다. 일부라지만, 부실 의료, 병·의원의 행정태만등을 불 보는듯 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번주 「기자수첩」에서는 金基昶화백의 낙관을 위조해 가짜 그림을 팔아먹은 화가가 쇠고랑을 찼다.

술안주로 먹던 전복속서 콩알만한 진주가…

서울선 마취로 쇼크死되고 釜山선 시체가 바뀌어 소동

■정형수술 의료사고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8일 관악구신림본동92의37 鄭進의원원장 鄭在泰씨 (43)를 업무상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8월 4일12시15분께 정진의원수술실에서 정형수술을 받으러왔던 李모씨 (40·여·관악구신림본동)에게 수술전 충분한 사전조치없이 마취약 10cc를 정맥주사, 쇼크를 일으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鄭씨는 마취를 하기 전에 일단 진정제를 투여해 심적 안정을 피한 다음, 체중에 따른 일정량의 마취제를 산정해 주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마취제 투여후 혈압강하와 호흡상태를 계속 관찰, 쇼크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숨진 李씨의 시어머니 (60)등 가족들이 李씨의 사인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에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인감정을 의뢰했었는데『마취로 인한 사망일 경우 폐수종이 생기는데 李씨도 이에 해당돼 쇼크사임이 틀림없다』는 감정결과를 통고받고 鄭씨를 구속했다.

화가가 雲甫낙관 위조해…

▲서울성북경찰서는 지난9일 자신이 그린 그림에 유명화가의 가짜 낙관을 찍어 시중에 팔았던 李春基씨 (53·화가·서울마포구대흥동3의13)와 車相鉉씨 (45·무직·서울성북구성북동145의25)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李씨가 그린 靑綠山水 (가로40·세로60㎝) 등 동양화 2점에 雲甫 金基昶화백 (68)의 가짜 낙관을 찍어 종로1가 S다방에서 金정식 (39·고물상·서울 구로구 구로동496)에게『운보선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며 현금 3백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6월 金화백으로부터 시중에 자신의 가짜 그림이 나돌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나섰었다.

▲서울지검 수사과는 지난 11일 주식회사 대양필름 감사 金永煥씨 (50)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80년 4월 대양필름사장이던 韓모씨 (41)가 유가증권위조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중인것을 알고『항소심 판사가 동창생이니 유리하게 관결하도록 해주겠다』며 韓씨 가족으로부터 교제비조로 3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모두 5차례에 걸쳐 1백5만원을 받은 혐의다.

직원예금 삼킨 여사원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9일 신세계백화점 경리사원 文仁容양 (27)을 업무상배임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文양은 신세계백화점 직장새마을금고 경리담당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예금한 돈을 원장에 기록하지 않고 통장에만 기재해주는 수법으로 지난7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백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회사측은 최근 자체감사결과 文양의 범행을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했다.

■은행원 여관서현금슬쩍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은행원 崔병용씨 (20·상은대치지점)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8일새벽 2시반께 술에 만취된채 서울강남구신사동467의4 은하여관에 투숙하러 들어갔다 308호실에 투숙중이던 徐병배씨 (29·울산시일산동462의7)가 방을 비운사이 몰래들어가 徐씨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25만원을 훔치려다 때마침 방에 들어오던 徐씨의 부인에게 붙잡혔다.

徐씨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 울산에서 마중나온 부인, 장모등 가족과 함께 308호와 309호실에 나눠 투숙을 했었다.

■삥땅없애기 근본대책

▲정부는 시내버스안내원들의 삥땅을 둘러싼 노사분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운수회사의 수익금중 일부를 안내원과 운전기사들에게 특별수당형식으로 지급토록 하는등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삥땅시비를 근원적으로 해소키위해 승무원이 승차표 (토큰·승차권) 및 현금을 취급하는 현행 승차제도를 개선할 근본대책을 노동부·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앞으로 삥땅행위를 하는 안내원은 징계및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 다스리고 또한 회사측이 부당한 몸수색이나 사물함검색·물증없는 자백을 강요했을 때는 행위자와·회사대표를 함께 처벌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업무를 강화키로 했다는 것이다.

議員보좌관등이 사건해결 빙자 돈뜯어

스낵코너 미끼 사돈돈 갈취

▲서울남부경찰서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 李종철씨 (39·동작구신대방동698)와 宋왕섭씨 (40·관악구신림11동1563)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택시운전사인 蘇재길씨 (39·성동구자양동220)가 지난7월27일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되어있는것을 알고 蘇씨의 부인 蔡규철씨 (39)에게 『경찰에 힘을 써 석방시켜주겠다』면서 교제비조로 지난8월13일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4차례에 걸쳐 1백2만원을 받아 나눠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韓正子씨 (41·여·서울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64동402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韓씨의 남편 權重鎬씨 (5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사돈인 黃勇坤씨 (38·서울강동구잠실1동31의3)에게 부산金海공항청사에 스낵코너를 내주겠다고 속여 지난79년12월부터 80년9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9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지난 12일 밤11시께 서울강남구개포동 주공아파트1동508호에서 金玉子양 (20·동작구사당동)이 15m아래 잔디밭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숨진 金양의 친구 洪모양 (21)에 따르면 金양은 약3개월전 직장을 그만둔후 최근에는 수백만원의 빚에 시달리면서 버스값조차 없어 고민해왔는데 이날 이 아파트의 최모씨 (25·여) 집에 놀러왔다가 주위 사람들이 안방에 있는사이 갑자기 베란다 밑으로 몸을 던졌다는것이다.

▲지난8일밤 11시20분께 서울구로구시흥2동271 이리주점에서 黃基國씨 (28·제화공·충북괴산군장연면장암리660)가 처 玄明順씨 (28)와 손님 趙福衛씨 (43·육성운수 운전기사·구로구시흥2동271의52)를 가위로 마구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黃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잡혔다.

黃씨는 경찰에서 『지난3월 가정불화끝에 집을 나간 처가 서울에서 술집을 전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나선참에 이날 조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것을 목격, 불러도 나오지 않아 화가 치밀어 가위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서울시경은 엉터리컬러TV 보안경에 일제상표를 붙여 시중에 팔아온 경기도고양군신도읍석은리 챔피언전자공업사 대표 南星光씨 (40)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중간공급업자 權종영씨 (35·인천시부평동) 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세운상가 전자제품판매상 尹國鉉씨 (33·강동구길동356의10)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南씨는 지난5월부터 富平에있는 모 아크릴제조업체에서 아크릴1천7백개를 1천5백원씩에 구입, 엉터리보안경을 만든후 「닛도·브라텍스」란 일본상표를 붙인후 개당 4~5천원씩 모두 1천1백35개를 세운상가등에 팔아 2백8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배된 權씨는 가공업자에 의뢰해서 만든 가짜보안경 7천여개를 개당 4~5천원씩 세운상가등에 팔아왔다.

■모범보인 결혼식

▲지난12일하오1시 서울 성북구 삼선2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성북경찰서 돈암파출소소속 金鍾基순경 (27)이 신부 유나순양 (26)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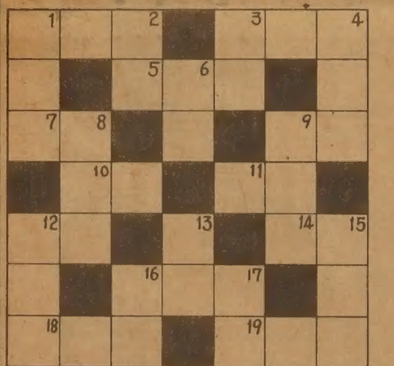
金순경은 번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예식장을 피해 동사무소를 예식장으로 택했고 주례도 동네 유지인 삼선2동 3통장 白병문씨로 모셨다는 것이다.

金순경은 신혼여행도 생략, 공부원으로서 검소한 모범을 보이겠다고.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24회 퀴즈>



■가로 <힌 트>

1. 중공 당총서기
3. 이제는 국민학교 1학년부터 가르친다。
5. 민물고기
7. 간염 공포 때문에 술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줄었다。
9. 대낮
10. 술꾼
11. 죽은 사람
12. 근심과 걱정
14. 하느님
16. 자주국방의 염원이 결실맺어 이젠 한국서도…
18. 처음으로 세계를 만듦
19. 오랜 침체를 벗고 이젠 투기 조짐까지…。

■세로

1. 태권도등 몸을 보호하기 위한 體技
2. 생각대로 거리낌없이 말함
3. 충분히 성장한 물고기
4. 지구위의 육지의 총칭
6. 길짐승의 고기
8.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늘어가는것
9. 징계조치가 풀리자 홈런을 터뜨린 프로야구 스타
12. 배수가 잘 안돼 더러운 물이 괸 도랑
13. 암암리의 다툼
15. 경북 청송군에 있는 국립공원인 명산
16. 수력, 화력, 원자력으로 얻는것
17. 어떤 일에 보조의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줌

<24회 정답은 128면에>

■뉴스낱말퀴즈 답 <23회>

숨은그림 찾기

장화홍련전

이조 세종때 어느 고을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어여쁜 두딸이 있었읍니다. 착하고 어여쁜 두딸을 둔 배좌수였으나 상처한 부인생각에 외로왔으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였읍니다.

이웃과 두딸의 권유로 후처를 맞아 들였는데 후처 허씨에게는 좀 바보스러운 장쇠라는 아들이 있었읍니다.

태생이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허씨는 장화, 홍련이를 미워하다 급기야는 장쇠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든다 하여 두 자매를 없이 하려고 음모를 꾸몄읍니다.

처녀가 애를 뱄다는등 온갖 모략끝에 드디어 두 자매를 죽이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승에서 맺힌 한이 저승에 가선들 풀어지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화, 홍련의 혼백이 나타나 허씨와 그의 아들 장쇠에게 권선징악의 벌을 내리도다。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요트, 고래, 문어, 버선한짝, 열쇠, 갓, 식칼, 은행잎, 여자구두한짝, 뱀, 알파벳A., 자동차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본지 創刊 18주년 특집 "이것이 人生이다"

밤10時 샐러리맨들의「한 잔百態」

取材팀이 찾은 단골술집들… 퇴근후의 哀歡

◇퇴근길 딱 한잔술이 시간가는줄 모르게 된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술한잔이 그만이다.

現場 르포

샐러리맨들은 술을 즐긴다. 생활에 지친 그들에겐 한 잔술이 유일한 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딱 한잔」으로 시작한 술은 밤이 으속해지도록 그칠줄을 모른다. 주머니가 가벼운 샐러리맨들이 즐겨찾는 싸구려술집들은 도심 곳곳에 즐비하다. 빈대떡집, 생맥주집, 포장마차. 샐러리맨들이 모여 애환을 달래며 기염을 토하는 단골 술집들의 밤 10시를 週刊한국 취재팀이 1주일간 취재했다.

빈대떡집, 2천원이면 하루피로 풀고 귀가

◇빈대떡집

직장에서 시달리는 샐러리맨들의 퇴근시간은 한잔 술이 간절한 그러한 시간이다. 일에 지쳐 심신이 나른한데다가 속이 비어 출출하기 때문이다.

또 계절적으로 술맛이 한창 당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술을 즐기는 직장인들은 퇴근 무렵이 되면 행동거지부터가 싹 달라진다. 동료들의 눈치를 슬슬 살피는가하면 괜히 옆사람을 집적거려 보기도한다.

그렇게해서 의기투합이 되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술집을 찾는다.

술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볍고 경쾌하다. 직장에서의 무기력한 태도는 찾아볼수가 없다. 눈에는 생기까지 돈다.

샐러리맨들이 이렇게「작당」해서 찾는 술집은 대개가 큰 부담이 없는 싸구려집들이다.

빈대떡집이 바로 그러한 술집중의 하나이다. 안주가 싼 편이고 분위기도 괜찮기 때문이다.

빈대떡집이라면 역시 청진동골목이 원조격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교보빌딩을 왼쪽으로 끼고 들어서면 골목 오른쪽은 모두 술집들이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유달산 포석정 청일집등 옛모습 그대로의 빈대떡집이 나란히 붙어있고 귀거래 숯불등심 생맥주및 경양식 부산해운대갈비 윤비정 미도장등 술집네온이 현란하다.

10여년전까지만해도 이 골목 양편으로 빈대떡집이 즐비했었는데 지금은 길옆에 세집, 골목안에 두집이 남아있다.

간판에 원조(元祖)임을 강조하고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88이란 기호를 크게 써놓은 청일집으로 들어가 보았다.

10평 남짓한 아래층엔 10개의 테이블이 놓여있는데 손님은 반쯤 차있다.

벽에 크게 써 붙여놓은 안주요금표가 눈에 확 들어온다.

빈대떡 한접시(3장) 1천5백원, 감자탕2천원, 조개탕 2천5백원, 매운탕2천5백원, 생굴2천5백원, 파전2천원, 두부1천원, 생굴전2천5백원, 낙지볶음2천8백원….

소주 한병이 6백원. 마신 술의 계산이 분명히 나온다.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 마실수가 있다.

빈대떡 한 접시에 소주 한병을 시켰다. 2천1백원이란 계산이 금방 나온다.

옆자리에선 30대로 보이는 친구 셋이 대화에 열중하고 있다. 소주 한잔을 권하자 거리낌없이 받아들였다.

주머니 사정맞춰간 싸구려 술집서 醉하고

사우디에 파견되어있는 건설회사 직원들이었다. 1년만에 20일간의 휴가를 얻어 나왔다한다. 현장에서 건축기사 관리직등을 맡고 있다한다.

『귀국하면 실컷 한번 마셔보려했었는데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근 1년만에 술을 대하니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몰래들 현장에서 술을 만들어 먹는다고들 전해지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 현장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다는것이다.

현장의 더위는 평균 섭씨 45도 정도이고 심할때는 60도까지도 올라간다는것.

『숨이 칵 막히는 더위를 그곳에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다』고 李모씨는 밝힌다.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싸우고 있는 산업전사들인 만큼 대화내용이 퍽 애국적인 내용들이다.

『일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자재는 일본업자들이 팔아먹고 있어요. 교과서왜곡사건이 있다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장삿속이 정말 얄미울 정도지요.』

관리직을 맡고있는 朴모씨의 얘기다. 우리나라 물건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들어올때 공항직원의 불친절을 꼬집기도 한다.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는 돌을 갓 지난듯한 아기를 안은 여인이 홀로 앉아있다.

朴씨의 부인이라고 동료들이 말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가 아쉽다고 주책없이 술집까지 따라나왔다』고 朴씨는 겸연쩍어 했다. 그는 2년전 결혼했다는 것이다.

빈대떡집의 고객은 대부분 직장인들인듯, 주정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서민의 술집인 빈대떡집도 불황을 타고 있다고 이집에서 6년간 일해온 崔씨(23)가 말해준다.

과외수업이 허용됐을 때는 학생들이 판을 쳤었다는것.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2층은 학생들로 초만원이었다 한다. 계산도 일반고객보다 더 올려주었다는 얘기였다.

요즘도 학생들이 가끔 찾아오긴 하지만 풀이 꺾여있다한다. 10여명이 몰려와 안주 2~3개씩 놓고 소주를 10여병 마시고 간다는것. 학생들도 미안해서 종업원들의 눈치까지 보게되었다고 전해준다.

『그렇다고 돈없는 학생들을 닥한수야 없는 노릇 아닙디까?』

이 집에서 16년째 장사를 해온 주인 朴正明씨(40)의 설명이다.

빈대떡집에서 얼큰해지려면 1인당 3~4천원정도는 잡아야 된다.

◇주점골목은 한산한것 같지만 술집 안에선 주당들이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생맥주집「안주風俗」달라져 단골들 차츰늘어

◇생맥주집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지만 2년전쯤부터 붐을 일으켰던 생맥주집도 샐러리맨들이 즐겨 찾는 곳.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생맥주집은 [illegible] 80년 초겨울부터 새로 나기 시작, 몇집건너 한집씩 있을정도로 일대 붐을 조성했었다.

요즘와서 시들긴 했으나 단골들을 확보, 그런대로 성황을 누리는 곳도 더러있다.

생맥주집은 퍽 서구적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다. 잔을 돌릴 필요가 없고 자기 주량껏 마시면 된다. 혼자 들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그래서 주로 회사원들이 즐겨 찾아온다 한다.

취재팀은 빈대떡집에서 골목을 빠져나와 생맥주집에 들러보았다.

종로구청에서 종로1가로 빠지는 골목엔 생맥주집이 서너곳 있다.

양장점을 경영하다 [illegible] 생맥주로 전업한 朴仁明씨(38)가 경영하는 생맥주집은 단골이 꽤 많았다.

8평가량되는 홀안엔 긴 테이블 하나에 4명이 앉을수 있는 테이블이 4개. 벽쪽으로도 기대어 마실수 있게 되어있다.

긴 테이블엔 직장동료들인 7~8명이 1천cc잔을 부딪치며 건배를 하고 있다.

이쪽 테이블엔 남녀가 쌍쌍이 앉아 마시다가 취재카메라를 의식했는지 여자 손님은 재빠르게 자리를 피해버린다.

5백cc 한잔이 4백80원, 1천cc 9백50원, 땅콩·김·멸치·새우튀김이 1봉지에 1백원 꼴.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른 안주도 준비하고있다. 생굴전, 새우전이 각각 5백원, 파전 1천원, 오징어 1마리 1천~1천5백원, 쥐포1마리 1백50원, 노가리 1마리 1백원, 골뱅이 1천5백원.

마신 술값을 자신이 계산할수있다. 그래서 주머니사정에 따라 마시는 양을 조절할수가 있다.

적당히 마실 경우 1인당 2천원이면 푹할것 같다.

밤10시가 넘어서자 손님이 뜸해진다. 주인 朴씨는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울상이다.

한창때는 하루 3만8천원짜리 생맥주통이 4~5통이나 나갔는데 요즘은 2통도 안나간다는것이다.

◇한물 [illegible]하나 생맥주집은 아직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고객들로 붐빈다.

포장마차, 제철이 오기전에 벌써 盛業

◇포장마차

포장마차하면 우선 그 이름부터가 낭만을 풍겨준다.

아닌게 아니라 흔들거리는 칸델라불빛이며 흰포장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정감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세종문화회관 옆골목에 최근 포장마차 2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다.

하오7시를 조금 지나 아직 해거름판인데도 주당들이 정말 우글거리고 있었다. 천막 담벼락에 20m쯤 간격을 두고 2개의 포장마차가 나란히 있다.

포장마차와 담벼락 사이에는 30여명이 웅크리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취재에 응할것 같지가 않아 포장마차주변을 한참 서성이다가 한쪽구석에 자리를 잡고 술을 시켰다.

대중음식점에서 흔히 볼수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앉은뱅이의자에 안주거리 한두개와 술잔을 겨우 놓을수 있는 베니어판을 시멘트블록으로 받쳐놓은것이 술상이다.

소주병은 놓을자리도 비좁고 또 넘어질 우려도 있어 아예 땅바닥에 세워두는것이 편했다.

이 술판을 중심으로 3~4명씩이 둘러앉아 술을 마신다. 마시는것이 아니라 소주잔을 핥듯 술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거리가 어둑해지자 두 포장마차에는 50여명이나 모여들었다. 앉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둘러서서 마신다.

포장마차 좌판 네모서리엔 칸델라불이 춤을 추고있고 연탄화덕위 석쇠에선 안주굽는 연기가 연신 솟아오른다.

꼼장어 2마리에 1천원, 우렁 5개 1천원, 돼지고기 한접시 5백원, 꼴오징어 한접시 1천5백원, 대합1개1천원.

소주는 5백원이다. 대부분 손님들은 안주 한가지를 놓고 마시다 모자라면 또 요청한다.

고객은 각양각색이다. 허름한 점퍼차림에 넥타이를 맨 사람. 연령층도 20대에서 50대까지.

그런데 모두가 조용히 말을 주고받으며 술을 들고 있다.

옆자리의 20대 두 젊은이는 취직걱정을 하고 있고 이쪽 술판에 5명의 40대가 둘러앉아 고향이야기를 나눈다. 아마 동향친구들인듯 했다.

포장사이로 사람물결이 흘러가고 있다. 자동차도 지나가고… 가을이라 하늘이 높아졌는가. 빌딩숲사이로 손바닥만하게 트인 하늘엔 별들도 서너개 보인다.

자리를 잡은지 한시간이상 기다렸는데도 취재할 기회가 도무지 잡히지 않는다.

소주만 홀짝이다간 취해버릴것만 같았다. 참다못해 카메라를 꺼내 삼각대 위에 받쳐놓고 앉은채 슬쩍슬쩍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는 사용할수가 없었다. 마시는데 열중한 좌석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것인지….

옆 손님과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할정도로 술자리에 익숙해졌다. 취기가 올라 대담해진 기자는 벌떡 일어나 셔터를 미친듯이 눌러댔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 술맛나는 계절에 한잔 기울이는 것이 뭐 어떠냐는듯 미소까지 던져준다. 진작 용기를 내어 취재할것을….

밤11시쯤 7~8명의 아가씨들이 포장마차를 둘러쌌다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모두 달아나 버렸다. 포장마차주인은 싫은 기색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몹시 후들거린다. 둘이서 2홉들이 소주를 4병이나 비우고 4시간이나 쪼그리고 있었기때문이다.

포장마차는 겨울이 제철인데도 시내 요소요소에서 성업중이다.

남대문시장옆 제일은행 뒷골목은 포장마차와 그와 비슷한 형태의 행상으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10년간 포장마차를 하고있는 文泰櫻씨(45)는 포즈까지 취해 주었다.

카메라를 취미로 하고있다는 한 회사원은 쉽게 어울려 술잔을 나누게 됐다.

포장마차에 외상장부까지 만든 술꾼도

『부담없이 다양한 안주로 술을 마실수있어 이곳에 자주 들른다』고 말한다.

그는 외상을 긋고 자리를 떴다. 외상장부까지 준비하고 있는걸보니 文씨의 포장마차엔 단골들이 많은듯 했다.

◇중국집

중화요리는 원래가 고급음식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샐러리맨들이 자주 들를곳이 못된다.

그러나 이같은 샐러리맨들의 주머니사정을 감안, 직장주변엔 값싼 중국집들이 많다.

치안본부 뒷골목에 있는 順閣이 바로 그런중국집이다. 총면적 6평에 주방이 1평을 차지하고 있다. 4명씩 끼여 앉을수 있는 테이블이 5개.

안주값이 다른곳보다 훨씬 싸다. 오향장육 2천7백원, 잡채 2천5백원, 탕수육3천3백원, 부추잡채3천8백원. 대부분 3천원선이다. 소주 6백원에 고량주는 1천3백원.

안주 하나를 시키면 얼큰한 계란탕이 서비스로 나온다. 셋이서 안주 하나로 얼큰해질수가 있다.

고객은 주로 주변 직장인들. 그래서 거의가 외상거래다.

주인 張繼友씨(46)는 서울에서 태어난 화교이다. 인심이 후해 단골들이 많다.

주머니는 비어있고 술생각은 간절한 단골들은 부담없이 이집에 들른다.

생선횟집들「박리다매」商術에 술꾼몰려

◇생선횟집

생선회라면 술꾼들에겐 최고의 안주다. 왜시절등 고급횟집은 계산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러나 박리다매로 서비스하는 생선횟집도 많다. 남대문시장안에는 이런 횟집이 네곳이나 있다.

대한화재빌딩쪽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보면 왼쪽에 남대문생선횟집이 있다.

2층 2백여평이 모두 횟집으로 16집이 횟집을 하고 있다.

회를 먹으러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 초저녁인데도 자리가 반은 찬것같다. 책가방을 끼고온 대학생도 있고 가족동반으로온 축도 있다. 모두가 생선회의 감칠맛을 만끽하고 있다.

생선회 한 접시에 4천원, 소주 6백원, 맥주는 1천2백원. 다른안주는 없고 시원한 생선국이 서비스로 나온다. 광어·민어·숭어·바다뱀장어·멍게등을 고루 섞어놨는데 둘이서 한 접시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옆좌석의 한 중년남자는 생선회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다. 혼자서 생선회 두 접시와 산낙지 한접시를 말끔히 비운다.

남대문시장의 생선횟집간엔 판매경쟁도 심한듯. 시장바닥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아주머니를 고용한 회센터도 있었다.

금잔미주든 막소주든 먹어서 취하긴 마찬가지. 좋은 안주와 술에 미녀까지 곁들이면 더할나위 없겠다. 그러나 그것은 돈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부지런만 하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술을 마실수가 있다. 순대와 돼지머리고기 5백원어치에 소주 1병이면 딱 1천원.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누가 탓하겠는가.

요령없이 아무 술집이나 들어갔다간 바가지를 쓸수도 있다. 지방에서 서울에 과일을 넘기러 왔다가 봉변당한 청년5명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친구5명이 천호극장 뒷골목 술집에서 2시간정도 소주 여덟병을 마셨는데 그 계산이 자그마치 14만4천원.

계산명세를 보니 기가찼다. 소주8병8천원, 대구포6접시1만8천원, 사과6접시1만8천원, 오징어포4접시1만2천원, 복숭아4접시1만2천원, 건포도2접시8천원….

과일로 바가지를 확 씌웠는데 소주 8병에 들어온 안주접시가 무려 42접시.

못생긴 호스티스 셋이서 바람을 잡았다는것. 무전취식으로 지서까지 끌려가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다.

그래서 샐러리맨들은 계산이 분명하고 부담이 없는 술집을 단골로 삼는 것이다.

글 金弘祚기자
사진 金孝烈기자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광고란

구독신청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지금 웃는중 落書

<먼이국땅 낙서인의꿈>

나는 대망의 週刊한국창간기념 낙서대회에 직접 참가 못하는 대신 대리인을 시켜 응모했더니 최우수상을 따내 부상 1백만원을 받았다. 나는 그 상금으로 나때문에 낙방한 국내참가자 모두에게 술을 한개씩을 만들어 줬다.

甘章(3600 Vabeach Blvd #102 Vabeach Va 23452 U.S.A.)

<검은 별>

週刊한국 낙서 최우수상 수상자들이여! 소생은 검은 별을 뿌려 7개나 딴 사람이외다.

—전과 7범— 김성열(土月文友會)

<주당들의 가을 찬가>

아~아~ 으악새 술퍼우니….

하연규(춘천시 후평동 주공아파트8동 406호)

★<어떤 절규>

우리들에게 쥐약대신 피임약을 달라.

—생쥐 일동— 박성관(이리시 모현동 1가67의54 2통3반)

<일본국사 왜곡뉴스를 듣고>

안중근의사 왈『에끼-또다시 때 [illegible]」

재미교포 홍분이

<밤에 왔다가 밤에 떠난 손님>

밤손님.

김성열(土月文友會)

<알림>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 日本으로 바뀌었음(역사왜곡이후).

—83년도판 기네스북 편집자— 박흥목(이라크 사마와에서)

<달무리>

둥근 보름달
은하수에 붉게 물들고 우수의 달무리
안개속에 그빛 찬란히 빛나네.
아름다운 추억을 은하수 타고 흐른다.
대지 위에 붉은 상념 이슬처럼 사라지네.
나무 위에 푸른잎새는 가을서리에 홀로
고독을 삼키고,
가슴속 깊은 상념은 별빛 싸늘한 밤에
유성처럼 흘러가 버리네.

최종근(서울 성동구 구의동 228의4 10통6반)

<이 영화도 상영금지 시켜야한다>

재인교수

—가정주부연합회— 李古山(서울동대문구 면목1동191의31 3통3반)

<人生은 가시밭길>

그래서 인간의 발바닥가죽은 두꺼운가 보다.

피카소 황소(서울성동구 화양동1 67의1 민족화실)

<어느 미스의 불만>

미스가 미숙해서 미스 좀 내기로 그러세요.

尹판와(용대지긴)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벽에「If you want good sex call 656-5XX9」(멋있는 섹스를 원한다면…로 불러주세요)라는 글이 써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이얼을 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름다운 목소리의 아가씨가 나왔다. 그녀는「Hey, go to your wife, stupid」(여보세요, 빨리 당신 부인한테로 가보세요 바보같으니)라고 했다.

K. Kim(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서인은 괴롭다>

낙서라면 질색하는 마누라에게 서울에 낙서대회참가하러 간다는 말을 차마 못해 한양에 과거보러 간다했더니 마누라 왈『흥-괘씸도해 알량이사 또 한양 생기겠구만.』

—경상도의 풍자가나서인— 선화공주(土月文友會·울산시 학성동377의17)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HO'S IN CHARGE?

in charge(of)는 「~을책임지고 있는」의뜻으로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판매부 책임자가 누군가?」를 in charge of 를 넣어 영어로 옮겨 본다면 Who's in charge of the sales department? 하면 될 것이고 「Mr. Gim이 책임맡고 있다」는 Mr. Gim is in charge. 이같이 간단히대답할수 있다.

charge에는 또「외상으로 달다」의 뜻도 있다. 백화점같은데서 물건을 사게 되면 점원이 반드시 Cash or charge? 「현금인가요? 아니면 외상인가요?」라고 묻게 된다. 이때 현금인 경우는 Cash. 라고 말하고 만일「크레디트카드」를사용하는경우는 Charge. 라고 한다음 credit card를 내밀고 계산을 치르면 된다.

A : Miss, who's in charge of customer complaints?
B : What's the problem, sir?
A : I bought this coffee pot here yesterday and it's defective.
B : Do you have your sales receipt?
A : Yes, right here.
B : Take the coffee pot and your receipt to the Customer Service desk on the second floor and they'll give you a refund.
A : 고객상담실의책임자가누군가요?
B : 무슨 일이신가요, 손님?
A : 어제 이 커피포트를 샀는데 알고보니 불량품입니다.
B :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A : 네, 여기 있읍니다.
B : 커피파트하고 영수증을 2층의 고객 상담실로 가져 가시면 환불해 드릴겁니다.
A : What do you do for a living?
B : I'm with BCM International.
A : Where is the company located?

B : In Chicago.
A : What do you do there?
B : I'm in charge of overseas marketing.
A : 직업이 무엇입니까?
B : BCM International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A : 그 회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읍니까?
B : 시카고에 있읍니다.
A : 거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B : 해외시장조사를 맡고 있읍니다.
A : That salesgirl was rude to a customer.
B : I know, but she's new here.
A : Who hired her?
B : I think Mrs. Jones did.
A : Why don't you know?
B : I'm not sure who's in charge of hiring.
A : 저 여판매원이 고객에게 무례하게 했다면서요?
B : 알고있읍니다만, 들어온지 얼마 되지않습니다.
A : 누가 채용했지요?
B : 존즈 부인일겁니다.
A : 왜 모르고 계세요?
B : 누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receipt : 영수증. refund : 환불. I'm with BCM : 「…에 근무하고있다」고 할때 I'm with~혹은 I work at~ 볼이 있다. overseas : 해외의. hire : 고용하다. department : 부 「디파트먼트」라고 t를 파열시키지 않고「디팔-먼」으로 발음한다.

【한국일보 시카고支社 제공】

유머英語

"At the famous hotel, a couple sank down on the grass. "I love you," he murmured.
"But we just now met," she protested.
"I know," he answered. "But I'm only here for the weekend."
호텔 잔디위에 한쌍이 쓰러져있었다.
『사랑해.』남자가 낮게 말했다.
『우린 방금전에 만났잖아요.』여자가 항변했다.
『알고있어. 그렇지만 나도 주말동안만 여기 있는거요.』
murmur :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 속삭이다. protest : 항변하다. 항의하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3

지난줄거리

늙은 할머니의 충격적인 얘기를 끝까지 믿지 않았다. 부자 여편네가 할머니에게 차용증서 거꾸로 써주고 전세돈을 날리기까지 해먹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결국 Y동 A의 구실을 들은 채 Y동 A아파트를 찾아갔다. 와우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은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은 낡고 허름하고 냄새나는 아파트의 애달픈 서민들의 삶도 눈여겨 보았다. 주인집 여편네의 증언을 들어나가는데….

『그 늙은이가 또 발작했나부죠? 떼를 써도 정도껏 써야죠. 잘 사는 집이라고 귀찮아서 그냥 내줄 줄 아는 늙은이예요. 백만원쯤 우습게 아는 집에서 불쌍한 늙은이 걸 그런 식으로 해먹겠어요? 말도 안돼요.』

여자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할머니의 주장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할머니가 주장하듯 차용증서를 거꾸로 써서 사기칠만한 여자들은 아닐 것 같았다.

『그 할머니가 너무 애걸하게 나오니까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아직 모릅니다. 가능하다면 사실을 밝혀서 피해자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나 막무가내로 나오고 약간 돌지 않았나 싶어서 의심해 봅니다만.』

『이미 재판까지 끝난 일 아녜요? 보셔서 알겠지만 미친 늙은이 말 믿고 선량한 시민을 괴롭혀서 쓰겠어요? 법치국가에서 이럴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주는 마음이 퍽 지극한 것 같았다.

『그 늙은이 지금 어디 살아요?』

『천막치고 어렵게 사는 모양입니다.』

『내 친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한 여자 독사 만들었어요. 어렵게 사는 늙은이라고 해서 백만원을 차용증 받고 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죠. 그냥 주면 씀씀이가 헤퍼지고 할까봐 차용증서 받아뒀던 거예요. 만약 그런 거 안 받고 줬었다간 정말 큰일 치를뻔 했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럴 일이었겠는데요.』

『들어보세요. 내 친구가 받을 맘이 없었다구요. 어차피 어려운 늙은이니까 받아낼 돈도 없었을 거구. 또 애초 그냥 줄 생각이었으니까 이사갈 때도 그냥 간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로 쳐들어와서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악을 써댔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백만원이 요즘 어디 돈예요? 떼버리면 조용할까 싶기두 했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괘씸해서 못참겠더래요. 그래서 넘긴 거예요.』

『저래도 그 지경이면 못참겠는데요.』

『누가 아니래요. 그래도 그 친구는 착해요. 지금이라도 그 늙은이가 맘 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공증하고 돈을 주고 싶대요. 착한 여자 괴롭히지 마세요. 미친 늙은이 말 듣고 또 조사하다니 말이나 돼요?』

『듣고보니 그렇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 할머니한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나 좀 찾아봐요. 누가 시키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논리적으로 떼를 쓸 수 있겠어요?』

『한번 더 조사해 봐야겠군요.』

내 가슴이 자꾸 흔들렸다. 할머니의 억지에 내가 말려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지한 할머니의 목소리와 똑똑한 통곡소리를 지울 수는 없었다.

지나치게 친절한 여자 집을 나와 다시 Y아파트로 올라갔다. 그 쪽에서 다시 찾아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만약 할머니 말이 옳더라도 할머니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이번 일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러나 Y동 일대서 할머니가 백만원이란 거금을 지니고 있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만한 돈으로 이자놀이한다는 것조차 가당찮은 일이라는 것이었다.

『할머니하고 친한 분은 없었나요?』

나는 몇시간 동안 헤매다가 지쳤다. 아무도 할머니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없어요.』

『조금이라도 가깝게 지낸 할머니라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엔 가까이 지냈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나중엔 앙숙이 돼서 말도 안하고 지냈어요.』

『그 할머니가 이사 갈 무렵에 앙숙이 됐나요?』

『오래됐을 거예요. 그 할머니도 그놈의 재판 때문에 신물이 났대요.』

『왜요?』

『할머니 얘기론 그 할머니가 알면서도 미우니까 모르는 체 한다는 거래요.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던데….』

인생을 모은 백만원을 사기당해 천막에서 지내다니

한오라기의 실끝을 잡은 기분이었다. 가게에 내려가서 술 한병과 과일상자를 사들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있던 할머니 표정이 별로 담담한 것 같지 않았다.

『귀찮아 죽겠네.』

얘기를 다 듣고 난 할머니의 첫 마디였다.

『그 할머니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천막에서 꼬마를 다섯이나 데리고 배곯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하세요. 도와주세요.』

내 애원이 지나쳤다고 할 정도였다. 할머니는 자꾸 딴전을 피웠다. 적지 안타까운 마음이 숨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얘기 다 했는데….』

할머니는 딴전을 피우면서도 자꾸 눈을 깜빡거렸다.

『할머니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다섯 데리고, 배 꼬파 우는 애들 데리고 같이 소리내어 우는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원귀라도 그냥 있겠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할머니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했다. 한참 만에 할머니는 고개를 외로 돌린 채 말했다.

『그놈의 할매, 일찍 뒈지지두 않을 거여. 독하니께.』

『원한이 서려서 돌아 가실 수도 없어요.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살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망할 놈의 늙은이.』

그러고도 한시간 가량이나 뜸을 들였다. 무엇인지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부자집 여편네에게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었다.

『망할 놈의 늙은이….』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 그 할머니 눈 못 감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나, 가막소 가믄 워쩐다?』

『왜 감옥 가요?』

『망할 놈의 늙은이가 미워서…그면 그럴수 밖에 없었으니께. 내가 일찍 죽어야는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건 제가 책임질께요. 정말 걱정 마세요. 얼마나 받았어요?』

『받긴 뭘 받아? 나, 그런 거 몰라.』

『받은 걸 거 아녜요.』

『……』

할머니는 치마꼬리로 눈물을 훔치고 내 손을 잡았다.

『삼십만원 받았어. 주는디 안받을 사람이 워딨겠어.』

『그럼요. 잘하셨어요. 그런 건 죄가 안돼요.』

『가막소 가서 큰일 난다는디?』

『누가 그래요?』

『그 여자가.』

『재판 받을 때 가서 뭐랬어요?』

『못봤다구 했다니께 자꾸 물어봐.』

앙칼진 대답이었다.

『돈 주는 거 봤어요?』

『아니라니께. 이자 받으러 갈 때 혹시 따개꾼들이 돈냄새 맡을지 모른다구 같이 가재서 갔었지.』

『이자, 얼마 받았어요?』

『사만원 주대. 망할놈의 늙은이, 담배 한곽이 읎서.』

『그런데 왜 모른체 했어요.』

『미운게 그렇지. 오죽 미운짓 하믄 그럴까.』

『그 여자가 삼십만원 줄때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구만 해주면 삼십만원 준댔어. 아침에 택시로 델러와서 삼십만원 주대. 그래서 시키는대루 다 했지.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해야지 다르게하믄 가막소 간댜.』

감옥 간다는 말에 주눅이 들어있는것 같았다. 나는 절대로 감옥에 보내드리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그래도 할머니는 두려운지 자꾸 더는 모른다고 손을 저었다.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이상 증거가 없어도 할머니 말을 증거로 임사장 여편네를 다잡아 앉힐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 손에 만원짜리 한장을 쥐어주고 내려와 소형 녹음테이프를 돌려보았다. 잡소리가 많이 섞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더듬거리는 목소리에서 임사장 마누라의 계산된 음모를 읽을수 있었다.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을까?

한글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 가난한 할머니가 일생을 모은 백만원을 차용증서 거꾸로 써주어 사기쳐 먹고 그것도 부족해 전세돈까지 빼먹어 천막치고 살게 할수 있을까? 그것도 부자집 여편네, 백만원쯤은 돈같이 여기지도 않는다는 여편네의 수작이었다. 할머니가 아파트로 쳐들어가서 다짜고짜 소리질러 창피를 당했다고 해서 무시한 할머니에게 그런 처절한 복수극을 펼칠수 있을까? 이건 내 생각에도 가장 비열한 복수극이었다.

춤바람난 여자의 행실은 사내보다 더 난해한 것일까

'하나님. 이 땅엔 이보다 더 비열하고 치졸한 복수극을 벌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죄없는 선량한 시민의 목을 조르고 출세하거나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명상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벙어리가 되어 주저앉은 날부터 법이란 것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법이란 피뢰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뒤에 쉬고 있읍니다.

아주 느긋하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언제가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법대로 심판하게 될 겁니다.

제발 그때 가서 하나님답게 변명 따위는 하지 마쇼.

애들에게 임사장집에 관한 정보를 캐내도록 했다. 불경기에도 제법 돈 걱정을 않는 사장이라고 했다. 아파트 근처에서 알아온 얘기로는 임사장 마누라의 씀씀이도 헤픈편이라는 것 정도였다.

『재미있는 건 마누라가 춤바람났다는 것과 고스톱은 끝내준대요. 소문이 짜하던데요.』

『괜히 하는 소리 아냐?』

나는 그 정도 얘기까지 단숨에 물어온 애들이 의심스러워 이렇게 물었다. 자칫 잘못해서 뒤를 캐고 있다는 눈치를 보여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녜요. 우연히 중국집 배달하는 녀석하고 가게집 배달하는 녀석을 만나게 돼서 물었더니 활발하던데요. 배달나가면 푸짐하게 앉아서 화투친다는 겁니다. 그릇 가질러 가면 문 잠그고, 나오며 어디 카바레로 나오라고 연락하는걸 몇번 들었다던가 그래요.』

나는 쉽게 임사장 마누라를 잡아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스톱 현장을 덮쳐봐야 별로 일거리가 생기지 않지만 춤바람에 얽힌 남자사냥 장면을 잡을수만 있다면 손쉽게 꺾어 앉힐 수 있을것 같았다.

『그럼 손빠른 애들 두명 보내서 추서 봐라.』

내 작전은 빤한 것이었다. 현장을 덮쳐 잡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쉽게 할머니를 등쳐 먹은 사건을 해결해놓고 싶었다. 남의 여편네를 무조건 꿇어앉히고 법적으로도 끝난 얘기를 물고 늘어지기란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애들은 오랜만에 흥미있는 일이라도 생겼다는 듯이 뛰어 나갔다. 춤바람 난 여자를 믿느니 바람난 수캐를 믿는 게 낫다는 시쳇말도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내가 지켜본 많은 이야기거리도 여자의 춤바람에 얽힌 것이 많았다. 춤바람 난 여자의 행실은 바람기 높은 사내들보다도 오히려 난해한 것들이었다.

많은 사내들은 제 마누라만 떼놓고 모든 여자들이 바람나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내들의 생리라면 여자들은 모든 바람이 정당화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모든 바람기가 영원한 비밀로 지켜지기를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춤바람난 여자들이 모두 음탕한 피를 가졌다고 믿진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많은 여자들은 춤바람과 대낮의 정사는 필연적인 관련으로 비추어졌었다.

춤 추는 젊은이들은 음탕하지 않는데 춤추는 유부녀들은 어째서 음탕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디스코텍으로 몰려드는 수 많은 젊은이들에게선 생생한 젊음의 향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늙은이들이 몸을 흔드는 곳에선 어쩐지 음탕한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는 느낌을 받곤 했다.

아리랑에 맞춘 춤사위가 그렇게 음탕했었던 말인가? 어깨춤과 상모꾼의 자발맞은 모둠뛰기에서 그런 음탕함을 맛볼 수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병신춤이나 자진머리에 감돌아드는 춤사위가 음흉한 웃음을 흘렸을까?

서양 것이라면 모든 걸 문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마 더 큰 사대주의인 것이다. 춤을 받아들여 멋들어지게 춤 추는 것은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른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채로 걸러서 수용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할수 있겠다.

애들은 이튿날 오후에 임사장 마누라의 행적을 연락했다.

『확인까지 했읍니다. 빨리 오세요.』

들뜬 목소리였다. 불법으로 주간 카바레를 하는 장소에서 임사장 마누라는 친구들과 헤어져 남자들과 어울렸으며 메모지에 방 하나를 잡아달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했다.

『바로 여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기다릴테니까요.』

『차질 없도록 해라. 눈치 채지 않게 잘 따라다녀.』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테니까 빨리 오세요.』

나는 녹음기 한대를 챙겨들고 달려갔다. 턱 밑에다 녹음기를 틀어주며 대담을 해댈 생각이었다.

여관 근처의 큰길가에 한 녀석이 나와 있었다.

『들어가지 십분쯤 됐어요. 허여멀건한 자식인데 애송이같애요.』

『너희들은 저쪽 골목에서 기다려라. 내가 신호하기 전엔 꼼짝도 마라.』

『우리가 해치우죠.』

녀석은 끝내기를 제 손으로 해보고 싶은 모양이었다.

『가서 기다려라.』

『예.』

못내 아쉬운 목소리였다. 나는 십여분쯤 기다렸다가 여관 뒷담을 넘어 들어갔다. 한적한 여관이었지만 방마다 사랑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할 장소가 없어서 이런 기현상이 유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태우고 싶어서만은 아닌것 같았다. 밝은 것을 너무 부끄러워 하는 속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부끄러운게 많다는 결혼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게 부끄러움일 수는 없다. 사랑하는 걸 부끄럽다는 공식으로 만들어 준 이유가 있을것 같기도 했다.

애들이 일러준 방문앞에 귀를 기울였다. 격렬한 몸짓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아랫도리가 기럽하는 걸 느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 여자의 교성이 유난하게 들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동물 가운데 암컷이 클라이맥스에 오르는 것은 사람 뿐이라는 말도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행복한 것일까?

임사장 여편네를 더 행복하게 내버려 둘 수 밖에 없었다. 차마 쾌락의 꼬리를 붙들고 교성을 지르는 방으로 들어설 수는 없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녀의 행복을 빼앗고 싶진 않았다.

하는 짓으로 보면 순간적 행복이라도 마구잡이로 빼어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나도 복수하는 사내가 되고 싶진 않았다.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갔다. 사내가 빠져 나갔지만 임사장 마누라는 화장을 하는지 나오지 않았다.

『누구요?』

상기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누구야?』

『당신 남편이 보낸 사람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더 시끄러워질거요. 가만히 앉아 계쇼.』

『……』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대꾸를 못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어 풍만한 육체를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보통 여편네는 아닌 것 같았다.

『금방 나간 친구가 누구요?』

『댁은 누구세요?』

『얘기했잖소. 당신 남편이 당신 뒤 좀 조사해 달래서 좇아다니는 놈이라고. 얘길 쉽게 풀려면 나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소. 다만 내가 묻는대로 죄다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조건이오.』

『흥신소서 나왔어요?』

『아뇨.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요.』

『얼마 받았어요?』

여자는 그렇게 담대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내들보다 언제나 대범한 것을 느끼곤 했다.

『내가 묻는 말부터 대답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장소를 옮겨요. 조용한 데 가서요.』

임사장 마누라를 한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눌러 참았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인 유일의
야채·과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r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홀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5,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 수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수야부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1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미술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유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송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완인우대
이정네, 이현우 사범 직접 지도
본관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지관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 고 접 수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병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 전화 : 661−1819

김대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집에서 일하실 할머니 급구
(숙식제공) 전화 : 762-1572

파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남녀불문)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261-2978. (R)752-9332 리

남자 웨이터 급구
628 Bloor St. W.

오전중이나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제외)
전화 : 465-6885 Mr. 유

경험있는 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여자용 코트등 의류품 만드는 회사에서 양재 또는 재봉일에 경험있으신 분 약간명 모집.
★ Sewing Machine Operators
★ Cutters ★ Pressers
Irving Posluns
637 Lakeshore Blvd. W.
Call 591-7128
Evening After 7시 270-1981(Mr. Arbour)

Dunut Shop에서 일할분 구함.
시간: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Sunday Night부터 Friday 오전 8시까지. 전화 : 482-4088

북쪽에 사는 분으로 자동차 소유자로써 가게헬퍼 하실분.
(지역 : Kingcity)
전화 : 833-6318

가정교사 하실분(하루3시간씩 - 주5일)
(7살, 9살) 전화 : 762-157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German-Canadian(백인)으로 37세임.
한국인 여자친구 원함.
전화 : 1-727-6490(Gert)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베비시터

5살난 여자아이 보아주시면서 살림 도와 주실분.
(10월15일경부터 입주 가능한분)
전화 : 274-843 ?) 278-4867(Mrs. 옥)

입주하셔서 8살된 여자아이 보아주시고
가사일 좀 살펴주실분 구함.
전화 : 624-5897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82-6223 (집)
839-8438 (가게)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Steel & Pharmacy)
전화 : 496-1664 Mrs. 리

매매

Coffee Shop in Medical Building
Long Lease & Low Rent.(Short hours)
call after 7:00p.m. 499-5217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건물 & 비즈네스 매매
(1) 매상 4,500 이상(W)
아스킹: $155,000(Hamilton)
(2) 매상 4,000-W.
아스킹: $99,000(Toronto)
전화 : 535-0028 Mr. Kim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Variety & Grocery Store for Sal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 주6일 오픈. 월순이익 $2,000이상.
Lottario Machine있고 Plaza안에 있는 Store. 241-5419

토론토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Mall안에 있는 장소.
2,500 sq.ft. 단, 하드웨어 비지네스 하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486-0397 김.

가정형편으로 급매. (Grocery Store)
(스카브로 지역) 좋은 조건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31-0979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 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n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 (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Donuts Shop for Sale
개업한지 한달 되었으며 전망 대단히 좋음.
Good Lease 와 Cheap Rent.
Donuts Shop Busines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오셔서 장소를 보시고 의논해 보세요!
580 Queen St. W.(At Bathurst)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 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1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Snack Bar Donut Shop &
Video Machine for Sale. 767-3301

Variety Stores
1. Ajax: W.T.O: $7,000 Rent: $1,260(M.)
리스: 6 years+5 years. 1,800 sq.ft. Asking: $75,000
2. Oshawa: W.T.O.: $8,000 리스: 6 years. Asking: $60,000
3. Oshawa: W.T.O.: $3,500. 리스: 6 years. 렌트: $500
아스킹: $29,900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Private Sale(No agents)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가게, 가스바
on main Highway, Toronto로부터 150mile 동북쪽에 있음.
연매상 : $600,000. 10% Financing.
연중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지역임.
3 Apt. House 포함
아스킹 : $185,000
꼭 관심있으신분 반드시 영어로 문의바람.
Call (613)332-1312 Mr. Webster

Store for Sale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763-731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차매매

77년 Chevy Malibu 2 Door. 49,000 mile.
Air-Con. AM-FM 카세트 $2,300 A-1 Cond. Certify.
전화 : 267-4770 Mr. 권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3 Bed Room Apt. 세놓음
유지비 포함. $478/M.
지역 : Weston × Finch. 전화 : 742-6309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더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셰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5 Capri Rd. 오후 2시전에 연락바람.
전화 : 622-3065 Miss Kim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킵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